



부평지식공유포럼

지역문화 발전전략과 실행노력

2017. 10. 19 Thu PM 2:00-6:00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주최 부평구문화재단 | 부평구

후원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지식공유포럼

 지역문화
발전전략과
 실행노력

2017. 10. 19 Thu PM 2:00-6:00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지역공유포럼 지역문화 발전전략과 실행노력

PROGRAM

사회 |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시간	내용	발표
14:00-14:10	인사말	박옥진 •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SECTION 01. 토론회서트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14:10-14:40	[중간보고]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황상훈 • 기본홍은QX 대표
14:40-16:00	[토론회서트] 부평구의 미래모습과 부평구문화재단의 역할 + 협동참가자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황상훈 • 기본홍은QX 대표 이원재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안영노 • 안녕소사이아티스트 대표 이현식 •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장 류정아 • 한국문화융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00-16:10	휴식	
SECTION 02. 지식공유포럼 부평문화HUB & 부평문화상상테이블		
16:10-16:30	부평구문화재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역할 재정립 방안	김유정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16:30-16:50	부평구문화재단의 미래 프레임 '협업'	유상진 • 생활문화센터 정책사업팀장
16:50-17:10	재단 내·외부 자율적인 협업과정의 난제	노수진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원
17:10-17:30	2017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운영결과	정예지 • 청년연력소 대표
17:30-18:00	인천 청년커뮤니티 사례와 쟁점 - 인천에 청년이 있다	신희숙 • 전차마을 경영기획팀장

CONTENTS

SECTION
01

중간보고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05

SECTION
02

지식공유포럼

부평문화HUB & 부평문화상상테이블

- 01 | 부평구문화재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역할 재정립 방안 32
: 김유정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 02 | 부평구문화재단의 미래 프레임 '협업' 43
: 유상진 • 생활문화센터 정책사업팀장
- 03 | 재단 내외부 자율적인 협업과정의 난제 47
: 노수진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원
- 04 | 2017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운영결과 60
: 정예지 • 청년인력소 대표
- 05 | 인천 청년커뮤니티 사례와 쟁점 - 인천에 청년이 있다 76
: 신희숙 • 잔치마당 경영기획팀장

부평지식공유포럼

**지역문화
발전전략과
실행노력**

SECTION

01

중간보고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2017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중간보고

2017. 10. 19

• 본 자료는 연구 중간단계 결과이며,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 안내 드립니다.

목 차

- I. 연구 개요
- II. 환경 분석
- III. 발전계획 방향
- IV. 과제별 세부내용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추진 체계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재단 본부조직의 통합에 따른 전략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부평아트센터, 부평·부평문화사랑방, 부평생활문화센터 공암188, 부평악상업센터, 부평도서관, 상산도서관, 부평기림도서관, 평천도서관, 길천도서관, 부평여광도서관, 부평청소년수련관, 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기관·공간별 운영현황 마련
- 활동인 조직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운영하기 위한 통합계획 수립 필요

부평구문화재단의 지역 내 역할 및 대외 위상 강화

- 부평지역 환경 및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부평구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새로운 전파 및 공간대 형성 필요
- 문화기획팀, 지역문화진흥팀, 역사문화진흥팀, 직산도서관 진흥팀 등 문화정책 파리기구팀을, 조례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구체적인 계획 및 보고 필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정책 방향 설정

- 본 연구는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정책 및 역할에 부합하는 문화정책 사업의 체계적 추진 계획 및 통합적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에 밀착된 신규 문화정책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연구 개요

2. 연구 범위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7년

계획기간

2018~2022년 (5년간의 중장기 계획 수립)

대상적 범위

내부환경

부평구문화재단 조직, 부평구문화재단 내 추진 사업, 수탁운영기관 3곳, 도서관 6곳 등

외부환경

새 정부 문화정책, 전국 문화재단 주요 이슈, 인천시 문화정책, 인천 내 기초문화재단 실행계획 등

외연수령

부평구문화재단 직원, 부평구민, 구 예술가/지역단체, 부평구 내 문화사업 관련 조직 등

1. 연구 개요

2. 연구 범위

내용적 범위

부평구내외 환경 및 정책 분석

부평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부평구문화재단 사업 성과 및 개선점 분석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2018~2022) 로드맵 구축 및 혁신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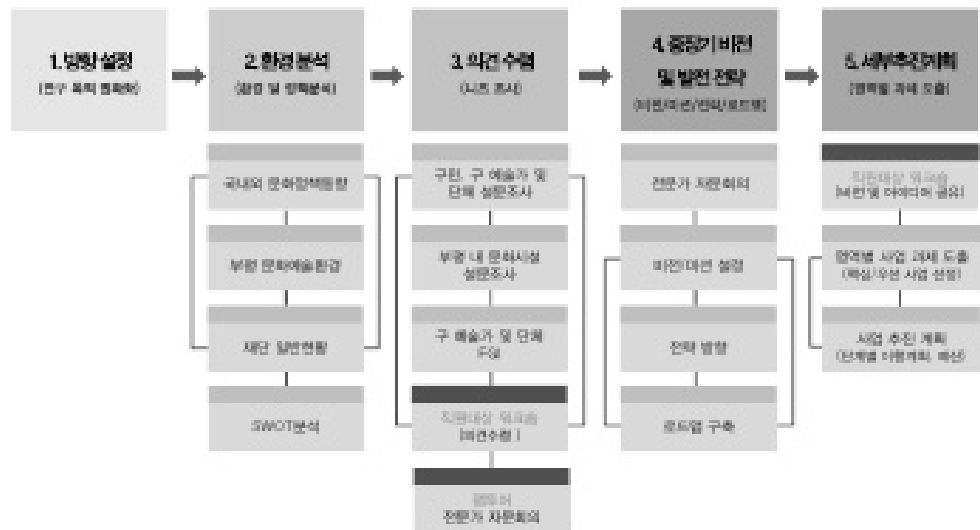
- ✓ 새 정부 문화정책, 전국 문화재단 주요 이슈, 인천 문화도시 추진일지, 인천 내 기초문화재단 추진 실행계획 등 고려
- ✓ 부평 여성문화도시 계획, 부평 지역거점발전 이행계획, 부평구 민선5기 비전, 부평 도서관에 활성화 계획, 부평구청 홈페이지 및 문화연계 연구팀의 실행 및 부평구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정립

- ✓ 국민 문화수요조사
- ✓ 구 예술가·예술단체·기획자·생협문화활동가 등 실태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한 평가
- ✓ 부평문화전, 부평구축재유전회 등 기관 조직지 문화사업, 부평 내 문화사업(여민도서관 등) 조사

- ✓ MainCity 부평부평몰리·문화도시 조성사업, 재단 내 기관·합동 사업 연계방안 및 기관 사업 발굴에 따른 계획(추진과정) 정리
- ✓ 재단 사업성과의 타당성 조사
- ✓ 공간 특성, 재단 조직문화, 사업 분석 평가
- ✓ 재단 임직원 만족도 인터뷰 및 워크숍
- ✓ 전통가정문화마을, 생활문화,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이커뮤니티,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문화도시, 공공건물 등 집단 FG
- ✓ 부평구문화재단의 특성가치, 비전, 다선, 전략 수립
- ✓ 문화예술 지원정책 개선, 내성적 문화예술 활동 확산, 문화예술사업 확대 방안 마련
- ✓ 부평구문화재단 내 기관 및 공간의 문화·교육발전

- ✓ 지역사업·문화정책을 우선시한·단체활동사업 등 핵심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 ✓ 문화도시, 문화예술공간, 전시, 생활문화, 도서관, 청소년, 청소년문화센터 분야별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 조직운영(가치, 재정, 인사) 개선 계획

3. 연구 추진 체계



II. 환경 분석

1. 부평구 일반현황
2. 부평구 문화예술 현황
3. 부평구문화재단 현황
4. 의견 수렴
5. 문제점 분석
6. SWOT 분석

1. 부평구 일반현황

위치 및 교통



유래

- 부평말어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 지역
-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주부토문,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이름까지 인원과 넓게의 고유 권역으로 발전
- 1940년 인천부치 편입

위치 및 교통

1. 위치

- 인천광역시와 북동쪽에 위치
- 북쪽으로는 계양구와 인접으로는 연구 및 남동구, 동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 서쪽으로는 서구와 인접

2. 교통

-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 경인전철, 인천지하철 1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도시를 직지행으로 관통하는 교통 요충지
- 인천항을 배후에 두고,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 용이

일반현황

- 면적 31,888㎡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면적은 1,040,888㎡)
- 주민 5,382명 (재정자립도 22.54%)
- 행정조직 4과, 3단, 1실, 3과, 25과, 1석회, 1보건소, 22개동

▶ 서울 및 인천시 주요 구와 인접하며, 교통환경이 우수하여 서울 및 주변 지역으로 접근 용이함

1. 부평구 일반현황

인구

전체 인구

- 부평구 인구 551,778명 (인천시의 약 18%)
- (인천시의 약 18% - 인천 행정구역 내 가장 많은 인구 거주)
- 세대수로는 217,033 세대



세대 별 인구현황

-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이미 11% 넘을 상황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도한, 도시밀 정할수록 증가로 1,2인 가구수(20~45세) 역시 매년 증가되는 추세



다문화가족 인구현황

- 인천 행정구역 내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

인천광역시 각 구 다문화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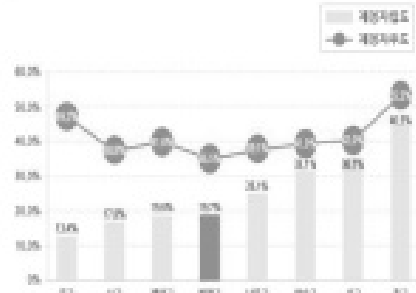
구분	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인적 (가족)	18, 832 (14.5%)	1, 377 (8.8%)	423 (3.5%)	2, 488 (2.1%)	1, 336 (1.9%)	2, 288 (2.9%)	4, 178 (7.8%)	1, 748 (1.9%)	2, 328 (2.9%)	213 (1.7%)	79 (7.0%)

▶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시 내에서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함

1. 부평구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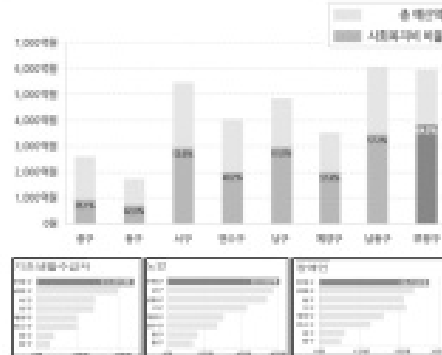
재정현황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립도 (2017년)



- 연도별(부평, 동구, 남구, 계양구)과 연도별(부평, 연수, 서구, 용구)의 재정자립도 추이
- 부평구는 과세와 조세부담으로 보편화 및 각자 정책 중
- 부평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아 재정여건이 열악함

사회복지비 비율과 기초수급자 수 (2016년 12월)



- 사회복지 수급자 수는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직결됨
-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복지수요의 증가는 사회복지예산 증가로 이어짐

▶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64%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임

1. 부평구 일반현황

역사

인천

부평

선학의 발달로 인한 인천항 개발

1. 전 거리의 교통이 가능해지며 활동영역 확장
2. 부산, 인천과 함께 세계도시로 인정 받으나 서울의 우월한 여위로 가장 많은 교통이 이루어진 곳이 인천
3. 세계 각국의 외국인 방문객의 유입
 - 최초의 정기기차와 오일(Moqui) 1호 출몰
 - 최초의 호텔과 커피숍
 - 최초의 영화관(계양)과 호텔(대동로)
 - 외국인들의 유입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연결 : 낙후된 위생과 오염된 길로 인한 식수원 오염 -식수의 부족 및 건강권 위협

내륙의 양아치대

1. 불룩의 성산과 임피알로로의 기슭
2. 바다를 향해 들어오고 487m는 불산들을 부딪고 문만

조선기(한국기) 전선

1. 일본의 전쟁후기 부흥-성산을 위해 불
2. 한국 최초의 중공업회사

ASCOM (주한미군 대령대 지원자본)

1. 일본 태생 후 한국군에 병거할 부대 주둔
2. 한국전쟁 당시 UN군의 인천상륙 작전에 참가한 미 해병대가 인천지역 개발
3. 이후, ASCOM으로 조성
 - 주한미군 보급을 위한 엄청난 물품적, 정신적 재력의 투입으로 경제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됨
 - 미국 대중문화 소개의 연마 향구
 - 새로운 정음의 음악 유입
 - 국내 음악가들의 공연활동 부대 결
 - 지역 진흥을 위한 거점으로 활동
4. 미군 철수 후 우리나라 최초 수출전문공

▶ 육군조병창에서 ASCOM으로 이어지는 부평만의 역사를 보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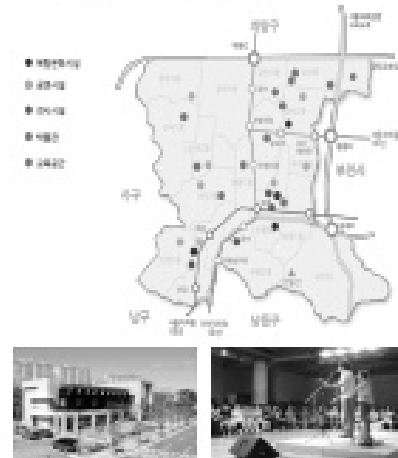
2. 부평구 문화예술 현황

문화시설

문화시설 현황

문화 합용 공간	독립문화시설 (3개)	• 부평아트센터(부평구문화재단) 1 개 • 인천여성회관(인천여성가족재단) 1 개 • 부평구청, 중앙·진리지원(부평구) 1 개
	공연시설(7개)	• 부평문화사랑방(부평구문화재단) 1 개 • 부평문화사랑방(부평주민센터) 1 개 • 민간 공연장 5 개
	전시시설(6개)	• 민간 전시공간 4 개
문화 교육 공간	박물관(2개)	• 부평역사박물관(부평구) 1 개 • 관악신교역사가당관(순복음부평교회) 1 개
	도서관 (26개)	• 시립부평도서관 (2 개) • 부평도서관 • 학구도서관
		• 구립부평도서관 (6 개) • 부평도서관 • 부평기독교도서관 • 정선도서관 • 장안도서관 • 부곡여원도서관
		• 구원자문도서관 (2 개)
		• 영안자문도서관 (1 개)

문화기반시설 지도 (도서관 제외)



▶ 문화기반시설이 서울지하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에 밀집되어 있음

2. 부평구 문화예술 현황

역사문화자원

역사, 자연자원

01 전통문화유산

- 부평두레놀이

02 근대문화유산

- 근대역 한일회담 기념지(삼정동)
- 일북형철기제보병동
- 비군주문지(제스형, 캠프아넷)
- 최초의 자동차 생산지

03 무형문화재

- 북상탈춤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 불매나리춤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 인천수륙제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 궁시장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04 자연자원

- 불모천
- 천남정역



문화콘텐츠

01 부평두레놀이

- 인천시 무형문화재, 부평향악에서 모내기 형에 행해지는 전통적인 풍물놀이



02 부평불꽃대초세

- 1997년 01월 부평두레농악을 개칭한 부평과 인천의 대표축제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공연예술 대표축제)선정



03 부평현도페스티벌



04 술아술아농악제

▶ 주요 콘텐츠로 풍물과 두레농악이 있으며,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함

3. 부평구문화재단 현황

조직



조직구성

- 부평구문화재단**
 - 3개의 본부와 2곳의 위탁기관으로 구성
- 재단본부**
 - 3개의 본부와 2개의 팀으로 구성
 - 도서관은 4개의 팀(공간의조)로 구성
- 문화구분 특징**
 - 부평아트센터, 부평문화사립빌, 도서관 등 공간 중심으로 조직 편성
 - 주요 운영시설로는 부평아트센터가 있으며, 이 시설을 중심으로 B+문화산업센터, 생활문화센터, 부평문화사랑방, 도서관 등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다년간에 걸쳐 성격이 다른 기관들이 수직적이며 조차 복잡하였으나 공간 별 협력 및 소규모가 타 연되어 있지 않음

▶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등 공간 위주로 조직이 구성됨

3. 부평구문화재단 현황

사업

주요 추진 사업

1. 부평 음악 - 음악도시 조성사업

음악도시 인천 만들기

- 내진 : 국내 - 외 대중음악 신인을 선출하는 "Max1 히어로 음악소프, 인천"
- 3대 실용악보 : 4개실 용악곡제 도시, 음악 히트시스 교부 장승포시, 음악 활용 도시(가정 및 학생용) 교정도시
- 5대 전략 : 인천문화로써 음악교육에 힘써서 문화 및 교육로 강화, 전국 대형 뮤지컬(가정) 추가 육성 및 관광 상품화, 신 - 원도성 선도거점 연계 - 육성, 음악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체계 구축, 음악도시 추진역할 강화 및 육성근거 마련

2. 부평생활문화센터

- 2019년 1월부터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해왔던 부평아트하우스를 직접 운영하여 2019년 11월부터 부평생활문화센터로 운영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선정하여 이곳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문화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운영 계획
- 비전 : 지역주민들의 삶에 입체한 문화예술 실천 공간
- 주요사업 : 생활문화홍보를 위한 전속하고 부가적인 개방형 공간으로서의 개선, 최첨단 도입, 자생적인 수익자를 통한 3년, 프로그램 참여 추진을 문화재단지로 감성 및 자발적 자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지역연계 활동 진행

3.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 부평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가, 예술단체, 예술계 대학, 홍보 방안 및 후원금 구축에 대한 플랫폼 구축
- 2019년 11월 개관한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부평구의 온라인 플랫폼은 부평문화재단의 핵심 사업
- 추진 전략 : 한강예술가, 시민의 요구 수렴을 통한 콘텐츠의 구축과 콘텐츠의 수급, 특화된 작은 규모(1인) 예술가와 시민 접촉을 위한 플랫폼 운영

▶ 지역정체성 강화, 생활문화, 온라인 기반 문화 생태계 구축 관련 주요 사업 진행

3. 부평구문화재단 현황

사업

부평구문화재단 조직 및 추진사업

기획경영본부

기획총괄/재단총괄	경영지원(경영·회계)
- 재단 발전계획 및 운영 정책 수립 - 사업평가 분석 및 개선 - 인사평가 및 경영평가 - 정책 개발 및 연구조사 - 정책추진 및 문화체육관광 운영	- 재무회계 (예산 및 회계관리) - 계약 관리 및 관리
사업관리	문화도시사업 (문화·관광·체육사업)
- 사업 관리 및 사업 위탁 관리 - 공공자산 관리 - 대관업무	- 문화도시사업 기획 - 문화도시사업 홍보

- 재단 발전계획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모형 및 문화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전문가 뿐 아니라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음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및 지역단체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문화사업본부

공연사업	문화사업
- 국내외 공연기획 - 공연장 확보기획 - 배치 공연예술 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관리 - 공연장알뜰주인공 운영 및 관리 - 부평아트센터 운영	- 생활문화센터 운영 - 생활·일 지역문화활성화 사업 - 전시관련 공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 구립예술단 운영 - 청년기획단 운영
<설명> - 대표공연초기 개발 - 뮤지컬 아름다운 시절 - 무당 밴드 페스티벌 등	<설명> 전시사업(부평아트센터, 부평 옥션 등)을 통해 지역 창작 활성화 및 유망기획 확대
부평문화사랑방 운영	무대기술
- 사랑방 상설공연 기획 운영 - 공연연극 기획 운영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무대(세팅)운영 및 관리

- 인력양성 및 지역문화예술인(단체) 지원프로그램 다름
- 민간예술단체와 지역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연계)이 많이 드러나지 않음

3. 부평구문화재단 현황

사업

부평구문화재단 조직 및 추진사업

도서관본부

✓ 도서관 주요 사업

사업명	경영지원(경영·회계)
책 읽는 부평	책을 매개로 다양한 사업(독서 출판물, 독서캠페인, 책에 사는 법) 진행 지원프로그램: 한 도시 한 책(17개) 책 읽기 프로그램, 공공작업 프로그램
책마을 서비스사업	부평구에서 하나의 마을공동체로 거주지역에 상설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문화·역사·관광·교육을 결합한 지역·문화·관광·교육을 결합한 서비스
도서관 학교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서포터즈 운영	도서관 운영인 홍보활동에 참여 문화유산 보존, 문화예술 기관발전,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 사서	지역 청소년·어린이들이 도서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청소년·어린이 사서 운영

- 무엇보다도 운영을 중심으로 5개의 도서관이 각 도서관의 특색화 사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하고 있음

▶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등 공간 별 특성화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위탁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 ✓ 부평청소년수련관
- 10개 분야(창의·과학·문화·스포츠·건강·청소년 사업 운영)

주요사업 (17개 분야)	한정교육지원 : 창의적 체험활동 기획 제공
그외분야 (8개 분야)	지속가능발전, 영인(의사)활동, 수련활동,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지역경제활동, 보호복지활동, 공모사업, 동아리활동

- 10개 분야의 관련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 ✓ 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명	내용
교육사업	배치된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방학특강,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 학교·지역·문화·스포츠·건강·청소년 사업, 교육활동성 교육
문화사업	성문화 캠페인, 학교폭력지원사업
조직활동	성교육활동가 양성사업, 청소년성문화활동지원 운영
공동사업	부평구 학생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2012~2015)

3. 부평구문화재단 현황

공간

- 부평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총 12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 예술 문화공간(4개) : 부평아트센터, 부평문화사당, 부평생활문화센터, RP문화산업센터
 - 학습 문화공간(8개) : 부평청소년수련관, 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도서관 8곳

공간특성

예술 문화공간	학습 문화공간
부평아트센터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	부평구청도서관 부평도서관(제물, 삼산도서관(동, 서), 부평1지역 도서관(남동, 남중), 삼산도서관(서동, 남산도서관(북, 동), 부평아트도서관(가림 및 옥) 등으로 특성화사업 전개
부평생활문화센터 지역민의 커뮤니티 공간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청소년 문화 공간
RP문화산업센터 포스트레벨 구축 및 창작인물에게 속거할만한 활동 기반 공간	부평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을 제공하는 성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 공간
부평구문화사당 열린 주민들의 문화공간	

공간분포도



- 인천지하철 1호선을 기준으로 문화기반시설들이 오른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인천지하철 1호선 기준 왼쪽에 청천1동, 선곡1동, 선곡2동, 선곡3동, 부평1동 쪽은 문화기반시설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 인천지하철 1호선을 기준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의 주요문화공간들이 오른쪽 지역에 편중 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인천광역시 부평구민
-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면접 조사
- 조사항목**
 - 1지역 : 돌암역 / 3지역 : 니버공원 및 롯데아트
 - 2지역 : 부평역 / 4지역 : 부평해자물길과 문화길
- 조사기간**
 - 1지역 : 8월19일(목) ~ 8월24일(목)
- 조사내용**
 - 부평구민의 문화·여가 활동 실태 및 활동 욕구 파악
 - 부평구 문화정책 및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 파악
 - 지역문화(의) 이미지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 조사



구분	해당지역	구분기준
1지역	돌암동, 청천동, 부평2동	인천지하철 1호선
2지역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남동동, 남중동	서동지하철 1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중앙대로
3지역	청천동, 청천2동, 선곡1동, 선곡2동, 선곡3동, 선곡4동	인천지하철 1호선 및 청천로
4지역	감산1동, 감산2동, 감산3동, 감산4동, 부평5동, 부평6동	대중역대, 서동지하철 1호선, 7호선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 문화예술 〉

· 부평구 문화예술 이미지

구분	내용	응답 횟수
공간	부평아트센터	19
	예술채널, 여성채널	2
	부평문화의 거리, 문화거리 축제	6
	거리문화, 거리축제	21
행동	공연, 문화축제	215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	40
음악	음악지우관, 인나는 음악, 음악축제, 음악회, 콘서트, 클래식, 발레	30
	긍정적인 느낌채널다, 즐겁다, 대동학이다 등	66
느낌	보통(평범하다, 보통이다)	11
	부정적인 느낌(기약하는게 없다, 낯설다 등)	66
축제	거리축제, 축제	20
기타	그림, 사진촬영, 문화유산, 무사할 등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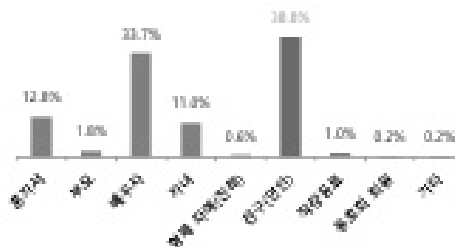
- 부평구 문화 이미지에 대한 총 516개 의견 수렴
- 항목관련 의견(직접 언급 및 관련 단어) 총 253회로 제일 많
- 이 언급됨
- 부평의 문화가 주는 느낌은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가 많았으나, 느낌 관련된 단어를 개별적으로 개선했을 때 “생각나는 게 없다” 라는 의견이 제일 많이 언급됨
- 부평문화재단에 대한 언급은 1회, 부평아트센터 19회로 부평문화재단과 관련된 이미지는 20회 언급됨
- 음악관련 의견은 총 30회 언급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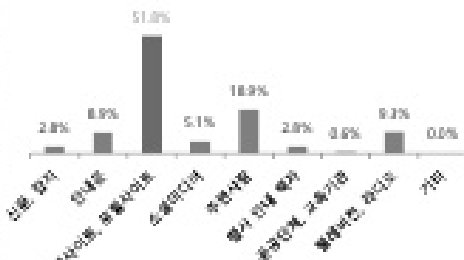
〈 문화예술 〉

· 문화예술활동 동반자



- ▶ 문화예술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는 친구(연인)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그 외 배우자 33.7%, 혼자서 12.8% 순으로 확인됨

· 문화예술활동 정보 습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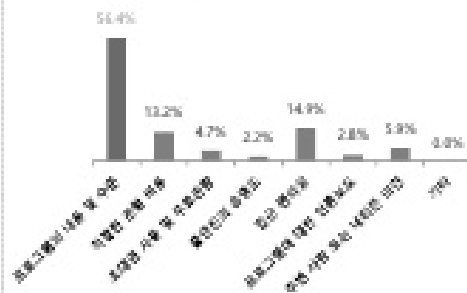
-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얻는 경로는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사이트가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공공단체, 교육기관이 0.6%로 가장 낮게 나타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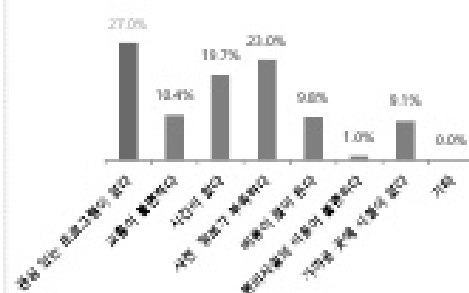
〈 문화예술 〉

• 부평구 문화예술 선택 기준



- ▶ 부평구 문화예술활동 참여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준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출연진의 유명도가 2.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부평구 문화예술 참여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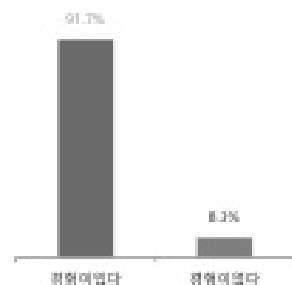
- ▶ 부평구 문화예술활동에 참여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그 외에 사전 정보가 부족하다 23.0%, 시간이 없다 19.7% 순으로 확인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 문화예술 〉

• 부평구 문화예술 참여 경험



- ▶ 부평구 문화예술활동에 참여 경험은 경험해 았다가 91.7%로 경험이 없다 8.3%보다 높게 나타남

• 부평구 문화예술 참여 활동명

구분	문화예술분야	인원(명수)
축제	국악축제	3
	김거지축제	3
	풍물축제/두레놀이	179
	음악(국악) 축제제	4
	가야(길주축제, 꽃축제, 안오축제, 풍물축제, 부평예술제)	6
공연/전시	공연(연극, 음악, 무용, 뮤지컬, 미술)	26
전시	전시	9
영화	CVR, 롯데시네마 등	241
여러선	여러선	3
강좌	가야(부평역사박물관, 부평구청, 김포천, 수부공원, 현대백화점)	5
기타	교과(일) 위주 전문학, 노래교실	2
	도서관 행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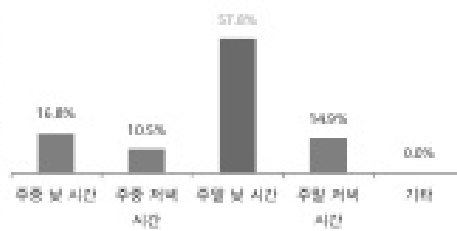
- ▶ 부평구 내에서 참가한 문화예술 활동명은 영화가 총 241회, 그 다음으로 풍물축제/두레놀이가 179회 언급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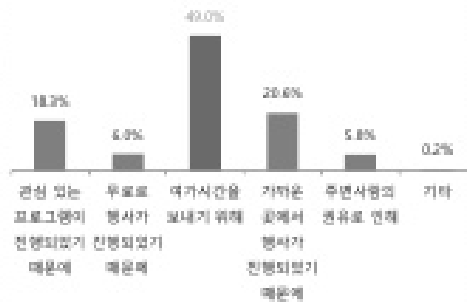
〈 문화예술 〉

• 부평구 문화예술활동 시간대



- ▶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주말 낮 시간으로 57.8%를 차지함
- ▶ 주중 저녁 시간이 10.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부평구 문화예술활동 참여 이유



- ▶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이유는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가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그 외 가까운 곳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등이 이유로 나타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 문화예술 〉

• 부평구 내 문화예술활동 보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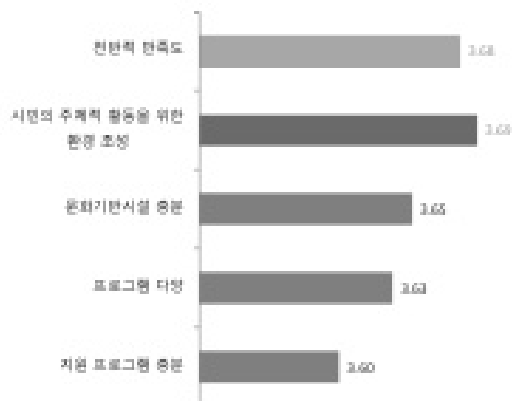
- ▶ 부평구 내 문화예술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그 외 문화예술 프로그램(작품, 행사)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등이 보완사항으로 나타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 문화예술 〉

• 부평구 내 문화예술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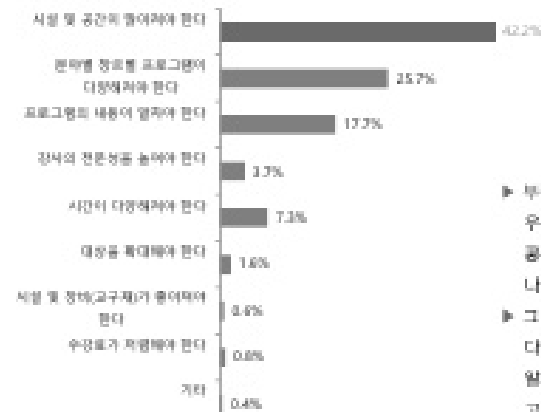
▶ 부평구 문화예술 환경의 전반적 만족도는 3.68점으로 보통 수준임
▶ 시민의 주체적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이 3.68점, 문화기반시설 충분이 3.65점으로 높게 나타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 문화예술 〉

• 문화예술 교육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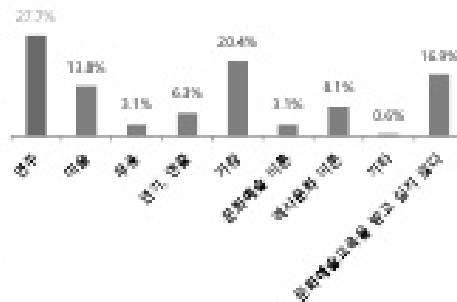
▶ 부평구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 분야별 장르별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깊어져야 한다 등이 문화예술 교육 시 고려사항으로 확인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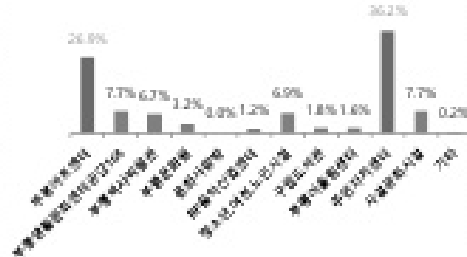
(문화예술)

• 부평구에서 받고 싶은 문화예술교육



- ▶ 부평구에서 받고 싶은 문화예술교육으로는 연주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그 외에 가요 20.4%,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 16.9% 순으로 확인됨

• 부평구에서 받고 싶은 문화예술교육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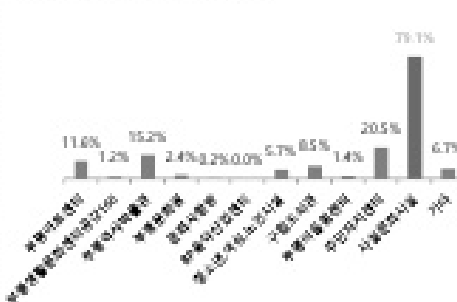
- ▶ 부평구에서 받고 싶은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는 주원자치센터 26.8%, 부평아트센터 26.9%로 높게 나타났다
- ▶ 그 외 나머지는 10% 아래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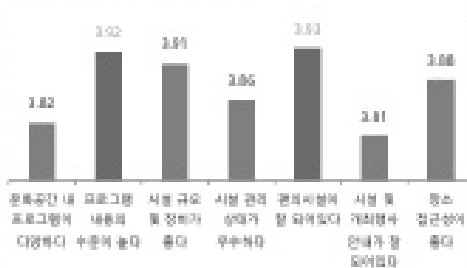
(문화공간)

• 부평구에서 이용한 문화공간



- ▶ 부평구에서 이용한 문화공간으로는 사실문화시설이 7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타 공간에 비해 사실문화시설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부평 지역 문화공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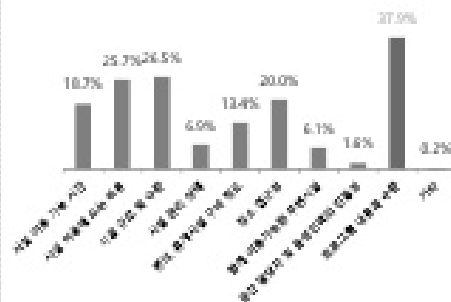
- ▶ 부평지역 문화공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87점으로 민중에 가까운 수준임
- ▶ 문화시설이 잘 되어있다가 3.93점 프로그램 내용의 수준이 높다가 3.92점으로 높게 확인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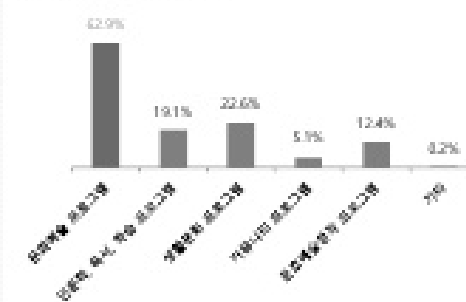
〈 문화공간 〉

• 부평 문화공간 이용 시 고려요인



- ▶ 부평구의 문화공간을 이용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그 외에 시설 규모 및 수준 26.5%,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25.7% 순으로 확인됨

• 경험하고 싶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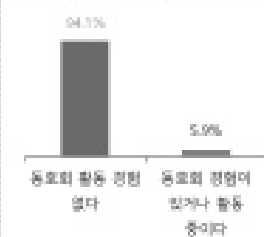
- ▶ 부평구의 문화공간에서 경험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그 외에 생활문화 프로그램 22.6%, 인문학, 독서, 학습 프로그램 19.1% 순으로 확인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 생활문화 〉

• 생활문화 동호회 실태-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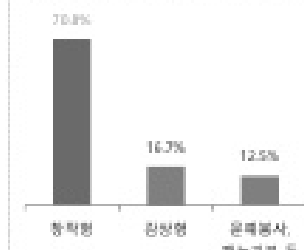
- ▶ 지난 1년간 참여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경험 여부는 동호회 활동 경험에 있다가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생활문화 동호회 실태-활동 분야



- ▶ 지난 1년간 참여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분야로 미술과 가장 많이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그 외에 연주, 전통예술, 식문화가 각 14.8%로 확인됨

• 생활문화 동호회 실태-동호회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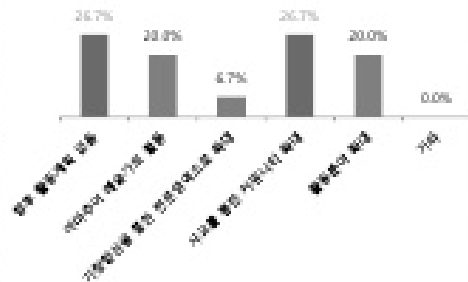
- ▶ 지난 1년간 참여한 문화예술 동호회의 성격으로는 창작형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그 외에 감상형 16.7%, 문제봉사, 재능기부 등 12.5% 순으로 확인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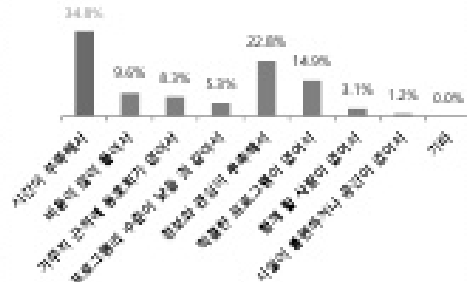
〈 생활문화 〉

•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계획



- ▶ 동호회 활동 후 계획이나 진로에서 향후 활동계획 없음과 사교를 통한 커뮤니티 확대가 각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난
- ▶ 그 외에 이마후이 예술가로 활동의 활동분야 확대가 20.0%로 확인됨

•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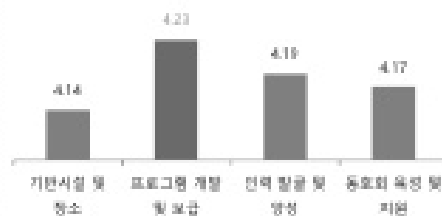
- ▶ 동호회 참여시 어려움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 ▶ 그 외에 정보와 관심이 부족해서 22.8%,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14.9% 순으로 확인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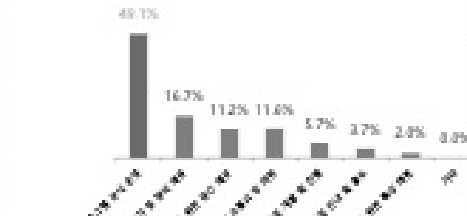
〈 생활문화 〉

• 생활문화 지원사업의 중요성 인식 정도



- ▶ 생활문화 지원사업의 중요도는 평균 4.16점으로 대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됨
- ▶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4.23점, 생활문화 관련인 인력 발굴 및 양성이 4.19점으로 높게 나타남

•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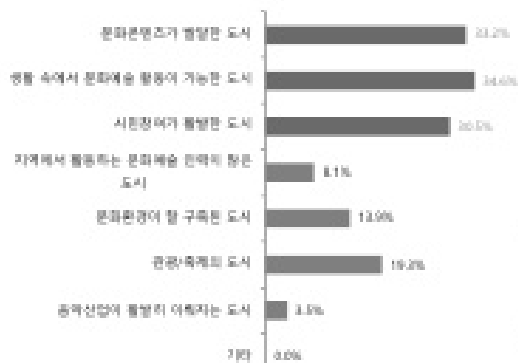
- ▶ 생활문화센터가 해야 하는 역할로 지역 주민 대상의 생활 문화 프로그램 상시 운영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난
- ▶ 타 역할에 비해 지역 주민 대상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상시 운영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 문화도시 〉

• 부평 문화도시 발전 방향



- ▶ 부평구가 발전하길 희망하는 문화도시의 형태로는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도시**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그 외 **문화콘텐츠가 발달한 도시**, **시민참여가 발달한 도시**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 문화도시 〉

• 부평구에서 강화해야 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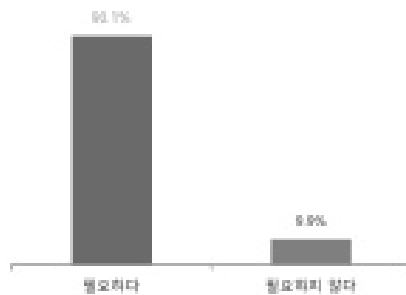
- ▶ 부평구가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 **문화예술 비전의 부평구 문화예술 공공성 확보**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그 외 **문화예술 비전의 부평구만의 지역성 확보**,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등이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 나타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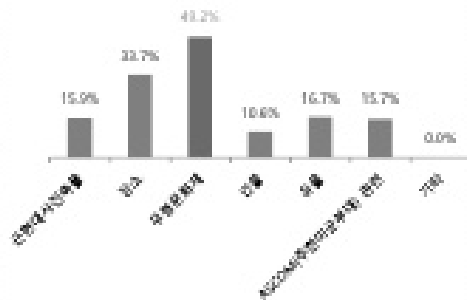
〈 지역문화유산 〉

· 역사문화자원 활용 필요성



- ▶ 역사문화자원 활용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90.1%로 필요하지 않다 9.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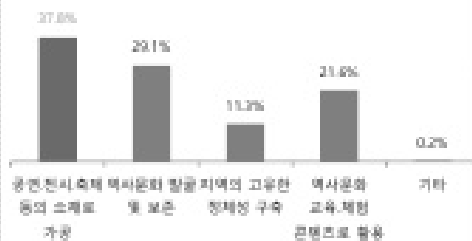
- ▶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은 무형문화재(탈춤 또는 차수장, 가평보유자, 부평두려놀이 등)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난
- ▶ 그 외에 장소(현일재원 시험지, 신곡로굴, 굴포천, 여물물 굴목 등) 33.7% 순으로 확인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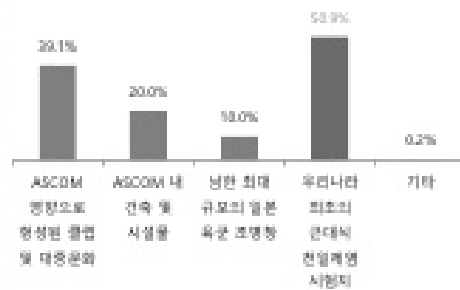
〈 지역문화유산 〉

·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 ▶ 역사문화자원 활용방법에 관한 의견으로 공원, 전시, 축제 등의 소재로 재가공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그 외에 역사문화 발굴 및 보존 20.1%, 역사문화 교육, 체험 콘텐츠로 활용 21.8% 순으로 확인됨

· 역사적 가치 보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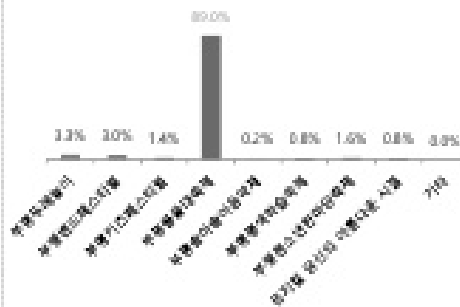
- ▶ 부평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현일재원 시험지가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그 외 ASCOM의 정형으로 형성된 굴터 및 대동문화, ASCOM 내 건축 및 시설물 등이 역사적 가치 보유 부분으로 나타났다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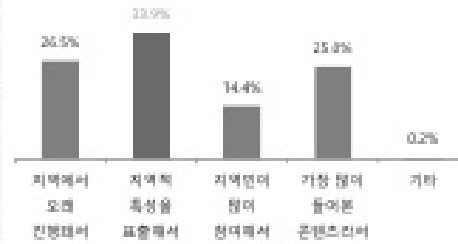
〈 지역문화유산 〉

· 부평구지역 고유성 반영 콘텐츠 선정



- ▶ 부평구의 지역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난 콘텐츠로 부평문화유산이 8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타 콘텐츠에 비해 부평문화유산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부평구지역 고유성 반영 콘텐츠 선정 이유



- ▶ 부평구의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나는 콘텐츠 선정 이유로 지역적 특성을 표출해서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그 외 지역에서 오래 진행된터 28.5%, 가장 많이 들어본 콘텐츠라서 25.8% 순으로 확인됨

4. 의견 수렴

부평구민 설문조사

구민들에게 각인된 부평의 문화이미지

- 부평구 문화 이미지 조사 결과 총 1,000개의 의견 중 문화관련 의견(체험 프로그램, 관련 산업)이 총 1,000개 중 50%의 비율로 가장 많이 언급됨
- 부평구에서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콘텐츠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콘텐츠는 "부평문화유산"으로 89%가 "부평문화유산"이라고 응답함
- 현재까지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문화가 대부분으로 부평구민들에게 부평문화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있음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의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참여할 기회가 있는 장소에 1,000개의 공간에 가장 많이 언급됨
- 특히 1,000명 중 1,000명(100%)이 "지역(마을) 내 문화예술 공간"을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꼽아 부평구 내 문화예술공간 참여 시 어려운 점을 찾는 공간에 접근의 편의성을 다른 관점에 비해 높은 비율로 꼽아 참여 공간 내 문화공간의 대한 필요성을 나타냄

뚜렷한 지역 별 특징

- 1점(1점~2점, 3점~4점, 5점~6점) : 문화예술활동 장소 및 활동시간 부족
- 특히 1,000명 중 1,000명(100%)이 "지역(마을) 내 문화예술 공간"을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꼽아 부평구 내 문화예술공간 참여 시 어려운 점을 찾는 공간에 접근의 편의성을 다른 관점에 비해 높은 비율로 꼽아 참여 공간 내 문화공간의 대한 필요성을 나타냄
- 3점(3점~4점, 5점~6점, 7점~8점) : 생활권 내 문화공간 필요
- 특히 1,000명 중 1,000명(100%)이 "지역(마을) 내 문화예술 공간"을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꼽아 부평구 내 문화예술공간 참여 시 어려운 점을 찾는 공간에 접근의 편의성을 다른 관점에 비해 높은 비율로 꼽아 참여 공간 내 문화공간의 대한 필요성을 나타냄

4.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FGI

- 목적**
- 부평구 문화예술지원역 단체들을 대상으로 부평구 자치문화진흥을 위한 의견 수렴
 - 분리별 인터뷰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향후 입점방안 및 지원책으로 활용

- 개요**
- 일 시 : 2017년 9월 13일(수)
 - 장 소 : 부평구문화재단 5F 501실
 - 진 행 : 서진숙 (기분좋은유엑스)

제1그룹 - 예술가 및 예술단체

예술가 및 예술 단체	부평구립서예동문회	문예당 이화자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조현정 이화자
	부평구립무용단	이영숙 김우자
	대기단수출연대	수광호 이화
	부평예술소리씨앗	김미진 이화

제2그룹 - 공간단체

공간단체 문화재단지원	1. 도서관 운영팀장	강원 도서관	한영희 팀장
		북해 지역의 도서관	김유호 팀장
		강원 도서관	박노연 팀장
		강원 도서관	이유림 팀장
	2. 주경문화사랑방	주경도서관 도서관	김재현 팀장
	3. 주경청소년수련관		박진희 팀장
	4. 주경문화문화센터 공간 1 & 2		최영지 팀장

4.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FGI

제1그룹 - 예술가 및 예술단체

콘텐츠

- 콘텐츠를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간접적 육성책과 직접적 육성책 전문적으로 비워둘 수 있는 인력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 중기적 저축하여 온 행동을 기존의 대표성을 유지하지 못 한 다 다양하게 구상하여 다문화 육성 필요
- 역사적으로 스토리가 있는 레전드 등을 이용하여 대중문화 분야 등에서 새로운 콘텐츠 발굴 및 육성 필요

문화예술 교육활동

-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점
- 이해서부터 체계하고 정형화 수 있는 기회들 만들어주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교육자력 지원 필요
- 이것이 환경 잘 차악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

예술인 지원

- 부평에 거주하거나 실제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예술인들의 파악 필요
- 예술가들의 창작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필요 □무모사일 등□

재단의 지원

- 문화재단에서의 협업기회는 별로 많지 않아 지역 간, 단체 간 서로 교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어 지원
- 지역문화예술을 다지 허위적일 필요가 중요

4. 의견 수렴

이와관계자 FGI

제2그룹 - 공간탄생

사업

- 교양시민을 만드는 체계적인 교육사업의 확대 필요
- 공간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한 노력 필요
- 교육의 일부가 분장하는 범위 안에서 율곡도시사업 하하하 참여 가능

구조

-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인원/비 전문 인력 확대 필요
- 운영 및 재정적 지원 필요
- □□유치원생까지 □□무엇이든 □□공간 활용 부족

소통

- 도서관 □□수작기문화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 구축 필요
- 업무 진행에 있어 필요한 부분의 정보가 늦게 전달되거나 현장에서 실무진 진행하며 생기는 여러 상충 발생 등의 정보교류의 기회 부족
- 문화산업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필요

4. 의견 수렴

재단직원 의견수렴

2017 부평구문화재단 직원 워크숍

목적

- 부평구문화재단의 필요성, 역할, 가치 등을 조직 차원에서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직원 스스로 역할 정의와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함
- 재단 직원들이 스스로 비전을 갖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을 통한 재단 직원 기획 역량 강화

개요

- 일시 : 2017년 10월 12일(목) 9시~12시
- 장소 : 부평구문화재단
- 대상 : 부평구문화재단 직원
- 주요내용
 - ★ 문화 30.사(30) 문화기회
 - 교육내용 : 7가지 과정에서 살펴본 문화기획 개요와 기획안작성기법과 사례
 - 강사 : 한국문화기획학교 상임이사 최성진
 - ★ 사전 설명을 위한 자료제작이전 진행



4. 의견 수렴

재단직접 의견수렴

2017 부령구문화재단 직원 워크숍

비전설정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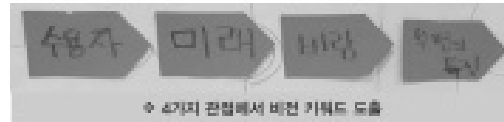
퍼실리테이션 목적

- 부령구문화재단 직원의 내세운 욕구 파악
- 원별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공통의 사업 방향 설정
- 서로의 경향을 공유하며 통합된 재단 모습 파악
- 재단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발전점 모습 도출

퍼실리테이션 과정

세션명	활동내용
여름 맞이	서로를 소개하는 게임을 통해 부대끼는 분위기 조성
여름 그리기	부령구문화재단 10년 후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
태양인어 도출	여러 그림을 둘러보고 생각해 보면 사고 있는 특정 단어들을 도출
나의 의견 쓰기	특정 단어들을 활용하여 의견문구의 쓰기 도출

퍼실리테이션 결과



◆ 비전 키워드

- 소풍, 합창, 교육, 융합, 갈수록, 통합, 모음, 이해, 시너지, 협업, 화합, 생활양식, 귀촌, 해외
- 다량성, 파생성, 전문, 소성, 가능성, 아이디어
- 협업, 집중, 행복, 자유, 복지, 마음, 사람, 친절 등

◆ 비전 문구

- 마음의 여유가 흐르는 갈성문화도시 부령
- 모두 다같이 즐기는 행복한 소풍의 부령문화
- 융합이 흐르는 갈성문화도시 부령
-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커뮤니티 부령
- 자유로운 상상이 흐르는 행복한 공간
-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여유
- 참여하고 나누는 생활양식형 문화융합도시 부령

부평지식공유포럼

**지역문화
발전전략과
실행노력**

SECTION

02

지식공유포럼

부평문화HUB

& 부평문화상상테이블

01 | 부평구문화재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역할 재정립 방안

: 김유정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02 | 부평구문화재단의 미래 프레임 '협업'

: 유상진 • 생활문화센터 정책사업팀장

03 | 재단 내외부 자율적인 협업과정의 난제

: 노수진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원

04 | 2017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운영결과

: 정예지 • 청년인력소 대표

05 | 인천 청년커뮤니티 사례와 쟁점 - 인천에 청년이 있다

: 신희숙 • 잔치매당 경영기획팀장

01 | 부평구문화재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역할 재정립 방안

김유정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1. 발표취지¹⁾

- 1997년 광역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98년 강릉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으로서는 처음 설립되어 2017.06.30. 현재 총 80개의 기관이 운영 중에 있음.
- 인천지역의 경우 2006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이하 부평구문화재단 이라 함)이 인천 유일의 기초문화재단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 2018년 서구문화재단을 시작으로 향후 2~3년 이내에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기초문화재단이 모두 설립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문화 정책 자원의 연구 및 운영상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성과 공유의 시간 마련 필요

2. 부평구문화재단 설립배경 및 운영현황 등

- 설립배경
 -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립도서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필요
 -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이전에는 부평구의 행정적 책임 아래 운영된 문화 여가시설은 부평·부개 문화사당방과 부평 국민체육센터 정도였음.
 -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운영비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문화 서비스 제공 방안 필요
 - 지역 내 관련 전문가의 네트워크 확장과 정책 개발 및 자문 등의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력 필요

1) 본 내용은 발표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부평구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문화재단 설립 정책효과



○ 비전 및 5대 전략

- 비전 : 모두함께 나누는 예술, 모두함께 누리는 문화, 모두함께 만드는 도시
- 5대 전략
 - 우수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장르의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대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 일상 속 문화공간 :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활용방안 개발, 찾아오고 싶은 열린 문화공간 조성
 -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 : 지역적인 참여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교육 확대, 생활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역 예술 창작활성화 및 유통 기회 확대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 문화정책개발 및 구현,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문화도시 무평 비전 창출
 - 신뢰 받는 경영 시스템 :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화, 마케팅홍보 시스템 강화, 운영 효율성 극대화



○ 연혁

— 2006 ~ 2009년

- 2006.12.04. : 부평구문화재단 설립허가 및 등기
- 2006.12.18. : 부평역사박물관 및 부평기적의도서관 위·수탁 운영 계약
- 2007.01.01. : 부평구문화재단 업무개시
- 2007.03.29. : 부평구문화재단 출범식 및 부평역사박물관 개관
- 2009.06.25. : 부평아트센터 위·수탁 운영 계약

— 2010 ~ 2014년

- 2010.04.02. : 부평아트센터 개관
- 2011.05.02. : 부평구립도서관 위·수탁 운영 계약
- 2011.07.14. : 부평어린이도서관 개관
- 2011.07.15.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 계약
- 2011.07.19. : 갈산도서관 개관
- 2011.12.29. : 부평구문화사랑방 위·수탁 운영 계약
- 2012.09.05. : 전문예술법인 지정

- 2013.04.12. : 청천도서관 개관
- 2013.06.30. : 부평역사박물관 위탁종료
- 2013.08.01.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운영계약
- 2014.12.04. : 부평구립예술단 위·수탁 운영계약
- 2015년 ~
- 2015.01.01. : 부평구문화재단 조직통합
- 2015.01.15. :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출범
- 2015.04.21. : 2016년도 문화특화지역조성(문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 2016.01.01. : 부평아트하우스 위탁운영
- 2016.02.01.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선정
- 2016.03.29. : 문화드림 시민회원 출범
- 2017.03.08. :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간168 개관
- 2017.04.01. : BP음악산업센터 개관

○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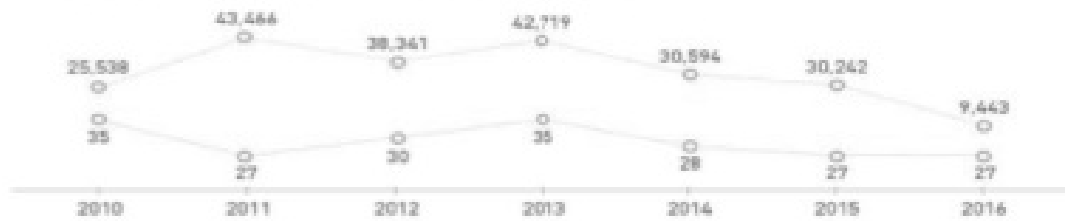
- 2010 ~ 2016년 사업별 데이터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부평구문화재단의 사업(공연·전시·교육·축제) 건수 및 참여인원은 총 392회, 426,680명임.

부평구문화재단 년도별·사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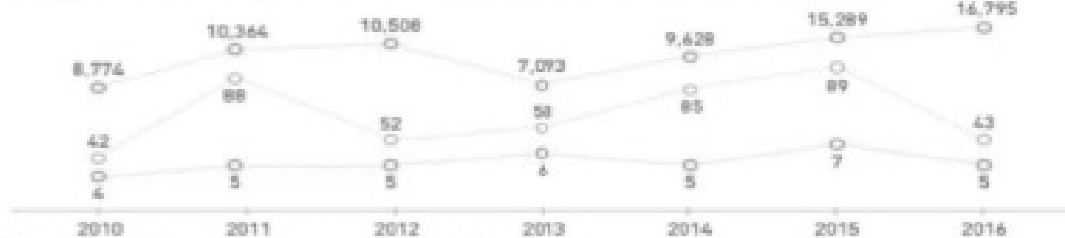
(단위 : 건, 명)

구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연	사업 수	209	35	27	30	35	28	27	27
	참여인원	220,343	25,538	43,466	38,341	42,719	30,594	30,242	9,443
전시	사업 수	37	42	5	5	6	5	7	5
	참여인원	78,451	8,774	10,364	10,508	7,093	9,628	15,289	16,795
문화교육	사업 수	125	55	26	23	27	16	23	16
	참여인원	16,804	7,873	1,266	3,205	1,395	1,274	1,071	1024
축제	사업 수	21	5	1	4	2	2	3	4
	참여인원	111,082	3,110	40,040	15,800	5,000	8,550	9,121	29,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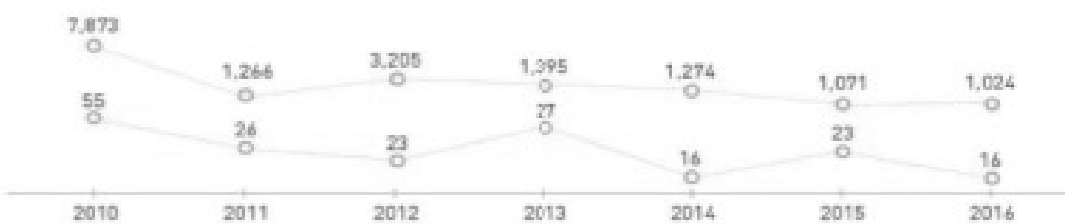
공연사업 : 2016년 9월 기준 ○ 기획공연수(회) : 209 ○ 관람객수(명) : 220,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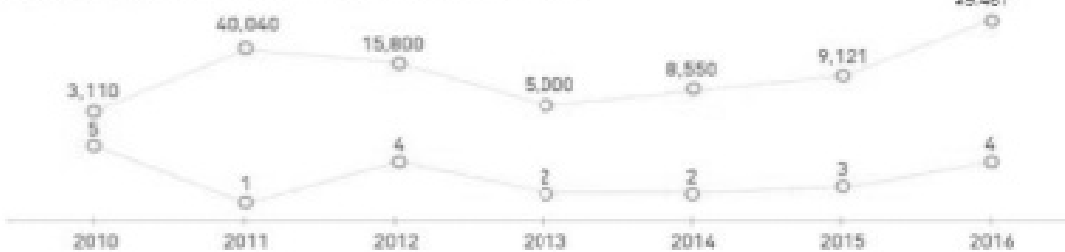
전시사업 : 2016년 9월 기준 ○ 기획공연수(회) : 37 ○ 관람객수(명) : 78,451 ○ 참여작가수(명) : 457



문화교육사업 ○ 연도별 강좌수(회) : 125 ○ 연도별 수강인원(명) : 16,804



특제사업 ○ 연도별 특제수(회) : 21 ○ 연도별 참가인원(명) : 111,082



- 2010 ~ 2016년 예산 데이터

- 무평아트센터 개관 등 외형적인 확장이 이루어진 2010년 이후의 연도별 예산을 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2007년 무평구문화재단(사무국과 무평역사박물관, 무평기록의도서관)은 무평아트센터 직원 채용 전까지 총 1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어 운영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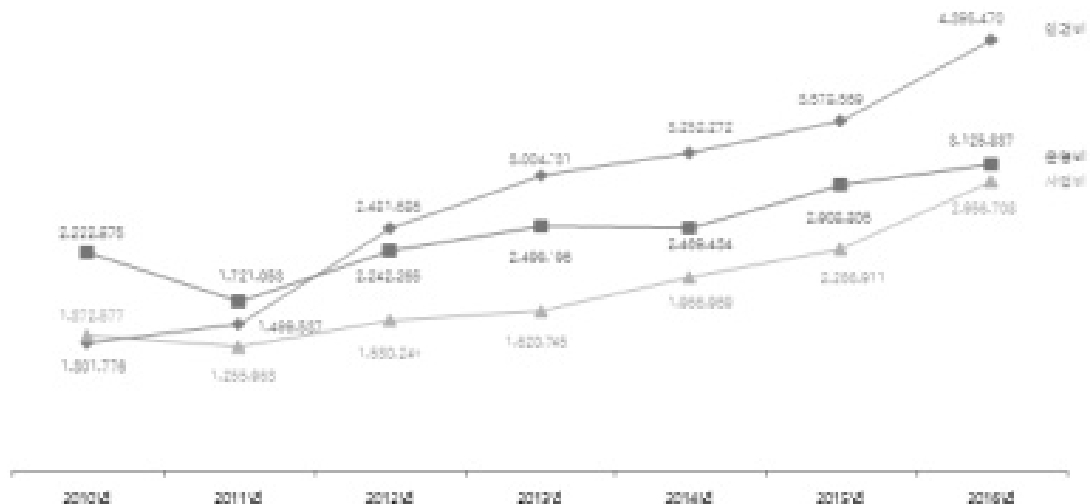
- 2010년 이후 구립도서관을 비롯해 청소년수련관 및 성문화센터 등 운영기관의 증가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각 부문별 예산 절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7개년도 평균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39.3%) > 운영비(24.6%) > 사업비(26.1%)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재직자의 근무연수 증가 및 법정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시설별 유지보수비 증가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예산 감소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평구문화재단 년도별·사업별 현황

(단위 : 천 원, %)

구분	평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7,096,231 (100.0)	4,897,228 (100.0)	4,476,553 (100.0)	6,254,192 (100.0)	7,124,672 (100.0)	7,688,675 (100.0)	8,754,285 (100.0)	10,478,015 (100.0)
인건비	2,787,720 (38.2)	1,301,776 (26.6)	1,499,537 (33.5)	2,481,686 (39.7)	3,004,731 (42.2)	3,252,272 (42.3)	3,578,569 (40.9)	4,395,470 (41.9)
운영비	2,455,638 (35.7)	2,222,875 (45.4)	1,721,053 (38.4)	2,242,265 (35.9)	2,499,196 (35.1)	2,469,434 (32.1)	2,908,805 (33.2)	3,125,837 (29.8)
사업비	1,852,873 (26.1)	1,372,577 (28.0)	1,255,963 (28.1)	1,530,241 (24.5)	1,620,745 (22.7)	1,966,969 (25.6)	2,266,911 (25.9)	2,956,708 (28.2)

※ ()안의 수치는 해당연도 각 항목별 구성비를 의미함.



3. 부평구 예산 변경현황

○ 부평구 정책운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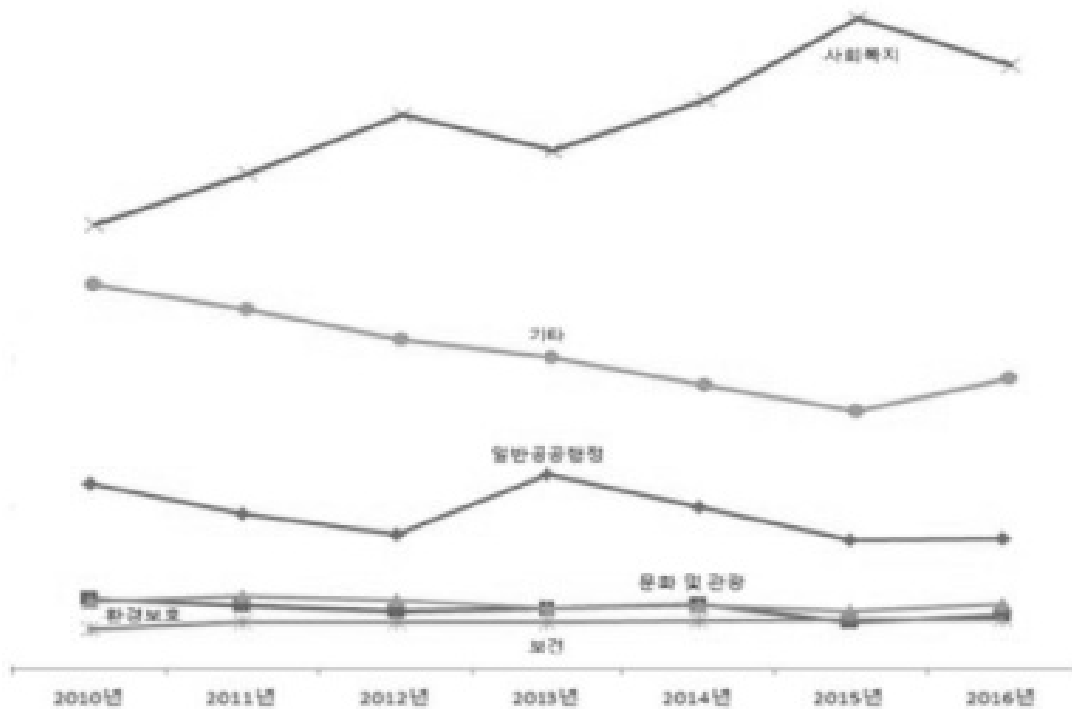
○ 부평구 예산 구성의 특징

- 인천의 최대 자치구이며, 인천 북부생활권의 중심지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등의 사회복지분야에 7개년 평균 57.61%인 242,964 억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 부평구문화재단 예산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문화 및 관광분야 중 문화예술 부문은 7개년 평균 11,006 억만원(7개년 평균 2.67%)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하향세를 보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 백만 원, %)

구분	일반회계									
	합계	일반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기타
			합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2010년	398,226 (100.00)	42,025 (10.55)	15,830 (3.98)	13,967 (3.51)	21 (0.01)	1,842 (0.46)	15,347 (3.85)	205,921 (51.71)	9,049 (2.27)	110,054 (27.64)
2011년	397,865 (100.00)	35,094 (8.82)	14,200 (3.57)	12,357 (3.11)		1,843 (0.46)	16,388 (4.12)	217,387 (54.64)	10,463 (2.63)	104,335 (26.22)
2012년	409,140 (100.00)	31,385 (7.67)	13,583 (3.32)	11,973 (2.93)		1,610 (0.39)	16,082 (3.93)	237,091 (57.95)	10,896 (2.66)	100,103 (24.47)
2013년	496,144 (100.00)	54,889 (11.06)	17,048 (3.44)	11,525 (2.32)	182 (0.04)	5,341 (1.08)	17,129 (3.45)	277,582 (55.94)	13,167 (2.65)	116,349 (23.46)
2014년	525,302 (100.00)	48,244 (9.18)	19,188 (3.65)	12,624 (2.40)	139 (0.03)	6,425 (1.22)	19,980 (3.81)	309,130 (58.85)	14,387 (2.74)	114,373 (21.97)
2015년	564,032 (100.00)	41,492 (7.36)	14,857 (2.63)	11,716 (2.08)	44 (0.01)	3,097 (0.55)	18,680 (3.31)	357,772 (63.43)	15,931 (2.82)	115,900 (20.45)
2016년	614,683 (100.00)	45,408 (7.39)	18,609 (3.03)	14,394 (2.34)	25 (0.00)	4,190 (0.68)	22,423 (3.65)	373,390 (60.75)	17,517 (2.85)	137,316 (22.33)

※ ()안의 수치는 해당연도 각 항목별 구성비율을 의미함.



4. 타 문화재단 예산현황

○ 선정기준

- 재단별 예산 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도권 내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광역 기초 그리고 기초문화재단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
-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무평구문화재단과 유사하게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성북문화재단²⁾
- 정책 및 공연·전시, 문화예술교육, 도서관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무천문화재단,
-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중구·성남·안산문화재단을 비교대상으로 선정

○ 재단별 예산 구성의 특징

-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예산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재단의 역할 및 운영 방향을 추측할 수 있음.
- 광역문화재단인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인건비(2014년 9.4% / 2015년 13.7%) 및 운영비(2014년 4.2% / 2015년 6.9%)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사업비(2014년 86.4% / 2015년 79.3%) 예산 비율이 전체 예산의 80%대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문화재단과는 다른 예산구조를 보이고 있음..
- 기초문화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구성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2015년 2개년도의 구성비는 서울 중구문화재단의 인건비(2014년 3,200 백만 원, 42.6% / 2015년 2,489 백만 원, 29.1%) 변화 외에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 기초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과는 달리 지역 내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역할 중심에서 지역문화진흥법(2014.07.29. 시행) 시행 이후 점차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의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문화정책을 현장에서 고민하고 확산하는 주체적 역할 담당
- 인건비와 운영비의 경우 시설운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평구문화재단 및 성북문화재단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1인당 평균임금이 높은 성남·안산문화재단의 경우 운영비가 낮고 사업비 비중이 높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재단별 1인당 평균임금 현황

(단위 : 천 원, 년)

구분	무평	인천	서울 중구	성북	무천	성남	안산
1인당 평균임금	31,673	37,889	36,430	29,422	40,443	49,359	50,030
1인당 평균근속년수	4.0	6.9	7.0	5.8	8.5	7.5	7.0

※ 1. 1인당 평균임금은 정규직 총합임금 기준임.

2. 출처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www.llofin.mois.go.kr) 중 출자·출연경영성격자료 재구성

2) 성북구민회관, 성북구립미술관, 성북여성회관, 하리랑시대센터, 성북정보도서관 등 도서관 9개관 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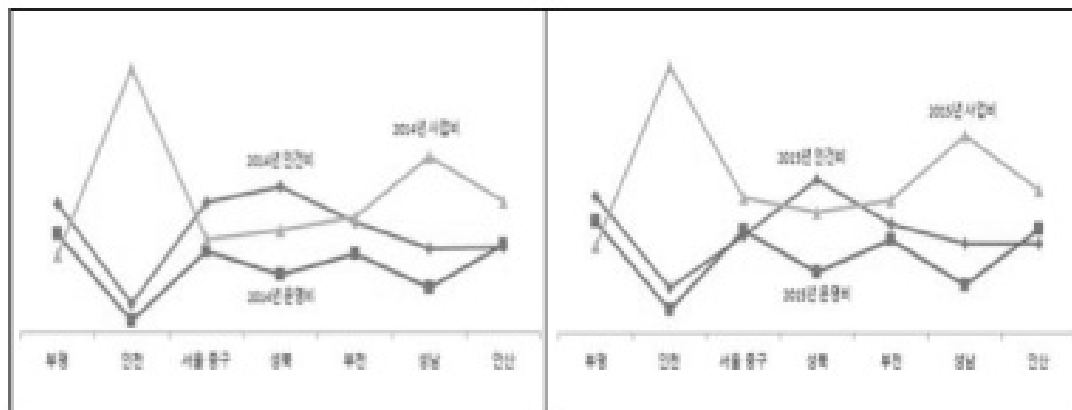
재단별 예산현황 및 구성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평균	무평	인천	서울 중구	성북	무천	성남	안산
2014년	합계	12,748 (100.0)	7,688 (100.0)	15,023 (100.0)	7,511 (100.0)	8,887 (100.0)	17,262 (100.0)	23,332 (100.0)	9,536 (100.0)
	인건비	3,918 (33.4)	3,252 (42.3)	1,418 (9.4)	3,200 (42.6)	4,232 (47.6)	6,235 (36.1)	6,419 (27.5)	2,673 (28.0)
	운영비	2,495 (21.6)	2,469 (32.1)	628 (4.2)	1,997 (26.6)	1,676 (18.9)	4,486 (26.0)	3,455 (14.8)	2,753 (28.9)
	사업비	6,335 (45.0)	1,967 (25.6)	12,977 (86.4)	2,314 (30.8)	2,979 (33.5)	6,541 (37.9)	13,458 (57.7)	4,110 (43.1)
2015년	합계	14,137 (100.0)	8,752 (100.0)	17,803 (100.0)	8,544 (100.0)	10,854 (100.0)	16,537 (100.0)	25,285 (100.0)	11,181 (100.0)
	인건비	4,086 (30.80)	3,578 (40.9)	2,444 (13.7)	2,489 (29.1)	4,950 (45.6)	5,407 (32.7)	6,761 (26.7)	2,975 (26.6)
	운영비	2,915 (23.1)	2,908 (33.2)	1,232 (6.9)	2,611 (30.6)	1,983 (18.3)	4,594 (27.8)	3,619 (14.3)	3,456 (30.9)
	사업비	7,134 (48.1)	2,266 (25.9)	14,125 (79.3)	3,443 (40.3)	3,919 (36.1)	6,534 (39.5)	14,903 (58.9)	4,749 (42.5)

※ 1. ()안의 수치는 해당연도 각 항목별 구성비를 의미함.

2. 출처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www.llofin.mois.go.kr) 중 출자·출연경영성과자료로 재구성



2014~2015년 재단별 예산항목별 구성비 현황

- 사업비의 경우 성남문화재단 및 안산문화재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평구문화재단이 구성비로 볼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무평구문화재단은 2015년 조직통합을 통해 지역 내 문화정책 논의 등으로의 역할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초기 설립목적인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5. 운영방향의 변화 및 제언

- 위의 사례로 본 수도권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시설운영중심 또는 시설·사업 복합운영 중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설·사업 복합운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 2014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기초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사업 수행기관으로써 과거 문화시설 관리·운영에서 벗어나고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 지역 현실에 맞는 문화정책 및 미션을 설정하여 지역 내 문화격차 해소, 문화 다양성, 생활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지역의 역사적 자원 발굴·개발은 물론 원형 등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
- 무평구문화재단의 역할 및 위상강화를 위한 제언
 - 환경변화에 따른 무평구문화재단의 변화 노력
 - 무평구문화재단은 2015년 1월 조직통합을 통해 시설관리·운영 중심의 사업영역을 시설·사업 복합 운영으로 변화를 꾀하였으며,
 - 2017년 2월 구립도서관을 통합하는 조직개편 및 생활문화센터 공감168 개관과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합도시 조성사업으로 생활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
 - 역할 재정립을 위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
 - 무평구문화재단은 설립 근거인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독립법인이지만 운영의 재원은 무평구청을 통한 공공재원이 투입·운영되고 있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의 한계가 있음
 - ☞ 지역적 특수성 및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재단의 활동과 성과 공개를 위한 예뉴얼 리포트 등을 통해 투명 경영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 유도
 - ☞ 재단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복지, 여성, 청소년 등의 관련 재원과의 연계 등 재원 채널의 다각화와 후원회 및 시민회원 제도 활성화 유도
 - ☞ 정책 기능 실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속 행정기관인 무평구청과 무평구의회와의 원활한 관계형성과 자율성 확보
 - ☞ 지역 문화정책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내 문화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및 인천문화재단과의 상호 간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 필요

02 | 부평구문화재단의 미래 프레임 ‘협업’

유상진 • 생활문화센터 정책사업팀장

부평구문화재단은 2017년 한 해 동안 각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부평구문화재단의 현황과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매월 정기적으로 가져왔다. 이 글은 그 논의과정의 결과이자 그 과정에 참여한 외부자로서의 제언이다. 지난 10년여간 2곳의 지역문화재단에서 근무한 개인적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가졌던 문제의식을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준 경영학자 모튼 T. 한센의 저서 ‘협업(Collaboration)’에도 바탕을 두고 있다. 경영전문가가 아닌 겸. 부평구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 이해 부족, 논의과정의 깊은 불참은 이 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자 한계이다. 이 겸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협업, 누구나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실행은 어렵다

이 문제는 모든 조직과 기관이 고민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협업은 ‘상식’이지만 실제 그 실천은 쉽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것이다. 또한 한센이 여러 사례분석을 통해 말하고 있듯이 협업이 무조건 긍정적 성과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협업을 부평구문화재단의 미래 발전의 중요한 사안으로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평구와 부평구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프로젝트>와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
2. 지역문화재단 정상운영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축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
3. 상호 협력, 정보 공유, 학습 조직 운영 등 재단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구축

1. 대외적 협업 : 영역 간 협업의 필요성

부평구문화재단이 올해 추진한 <문화HUB>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내가 또는 우리부서가 하는 일과 연계성을 찾아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사실 각 조직구성원 본인이 담당한 업무를 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업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상적일 수 있으나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현재 부평구와 부평구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미래의 큰 그림들은

관련 영역들의 상호 연계와 협력 없이는 그 목표를 해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한 현실이다. '생태계'로 표현되는 문화예술 영역은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도시재생 등 여러 영역들과의 연계,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기존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들은 '향유, 향수, 격차해소' 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문화예술 정책의 흐름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해소를 통한 향유 증진과 격차 해소 차원에 머물지 않고 개인,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넓게 바라보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격차 해소로는 궁극적으로는 문화권, 사회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문화영향평가제도'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SK공익재단을 중심으로 실행하는 공익 프로젝트들의 '사회적 영향 평가(Social Impact evaluation)' 또는 '사회적 효과 평가'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대 국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 때 효율성이나 경제적 성과보다는 사회적 영향과 효과 등을 측정, 평가하여 사회적 가치를 우선화도록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반의 중이다. 영국에서는 창의성 담론과 창조도시 프로젝트들이 문화적 불평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량(Capability)' 담론들이 주목받고 있다.

2. 대내적 협업 : 부서/정책/사업 간 협업의 필요성

무평구문화재단을 비롯한 많은 지역문화재단들이 설립 10여년을 넘어서면서 경상운영비 증가와 그에 따른 사업비 축소 또는 부족, 신규 인력 채용의 제한과 직원 평균 연령 상승 등의 구조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단 내부 구성원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 역량강화도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경제성장을 3% 미만의 장기적 침체' 예측이 우세하다. 어떤 학자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과거 20년간의 경제 침체기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또한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르는 사회복지비용의 확대에 따라 타 영역의 예산 축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정부 및 지자체 정부의 소위 말하는 '재정 절벽'과 이에 따른 '문화 관련 예산 축소'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 경제, 도시재생, 교육 등 타 영역과 연계, 협업을 통한 간접적인 문화 관련 예산의 확보와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재단과 관련한 최근 논의는 우호적이지 않다. 우선 지역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행정경비 또는 소위 '문화 관련 예산 집행 수수료'가 너무 많이 부담된다는 주장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재단 운영과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실제 지역문화발전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즉 재단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예술가 지원 및 시민 문화예술활동에 실질적 지원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안정된 고용창출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총액 예산제' '총액 인건비제' 등의 도입 논의

도 중요한 관련 논의다. 지역문화재단의 예산을 재정상황에 따라 지속적 확대가 어려우니 운영과 관리 관련 예산을 뚝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제도의 도입의 부당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엄두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 대비라 가장한다면, 현재 예산 구조와 규모에서 예산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정책 또는 사업 간 연계, 협업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은 사업비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다. 사업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지원은 부정적이어서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력이 없고,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은 늘어나게 되고 소기의 사업성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기존 정책과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 제고, 미래 상황에 대한 대안 등 다면적으로 연계와 협업 검토가 필요하다.

3. 협업 역량강화 및 협업체계 마련 : 학습 조직 및 문화 조성

학습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는 경영학에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토요타 자동차 생산라인의 팀 내 지식공유 및 문제 수정 과정이다. 토요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는 선임자들이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들을 팀원과 공유하고 발생한 문제들을 직접 연구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가진다고 한다. 이 사례는 기존 전문가가 연구실에서 연구, 개발한 지식과 해결책을 현장에 전하는 R&D(Research&Development) 모델이 유효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모델이 C&D(Connecting&Development)다. 각 개별 단위간의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기존의 각 개별자원을 공동 또는 공유자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찾아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경제학에서는 제도경제학과 공공선택이론의 대가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른바 '공유의 비극' 현상을 정부 개입이나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기존 논리에서 탈피해 '공동체 중심의 자체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주장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오스트롬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에서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온 공동체들이 발전시켜온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고 분석하였다.

무평구문화재단의 구성원도 학습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예산, 공간, 인력 등 재단의 공동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들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연한 말로 들릴 것이다. 대부분 우리는 설득력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능력 있는 리더십(Leadership)을 주로 말한다. 그러나 리더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절반만 맞다. 나머지 절반은 리더십이 합리적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훌륭한 팔로우십(Followship)이 있을 때 완성제를 이룰 수 있다. 이 팔로우십은 바로 리더를 제외한 조직 구성원 모두의 몫이다. 무평구문화재단의 미래도 대표이사의 현명한 리더십과 함께 지혜롭고 능력있는 팔로우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평구문화재단 구성원들이 학습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공동 문제해결책, 그리고 협업을 이루어간다면 현재 추진 중인 중장기계획의 목표달성은 물론, 타 지역문화재단에 모범이 되는 선도적 지역문화재단 운영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

여기에는 교육/시범프로젝트/시행 착오/기회비용 등 협업 비용도 발생하고, 적절한 협업 기회를 포착하여 협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결정, 그리고 협업 결정과 추진의 의사결정권의 부여 등 협업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이는 리더를 포함한 전사적 관심과 추진이 필요하다.

을 2017년 추진한 <문화HUB>를 뒤돌아보면 당초 기대보다 그 성과가 많이 미흡하다. 그러나 분명 의미가 있었던 작업이었다. 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시범적이고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단되지 말고 앞으로 무평구문화재단의 전사적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추진이 필요하다. 직원 평가 항목으로 독려할 수 있고, 경영 평가에서는 혁신 방안 마련으로 기관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교하고 생산적인 학습조직 운영과 관련 환경조성을 통한 조직문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상식(常識)대로 실천하는 것은 의외로 매우 어렵다. 협업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긍정적 상식이다. 하지만 실제 실행하고 그 가치와 목표를 취하기는 어렵다. 무평구문화재단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조망하고 준비하는 일을 진행 중이다. 관련 일들이 그냥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과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들이 발전하길 응원한다.

03 | 재단 내·외부 자율적인 협업과정의 난제

부평문화HUB,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을 중심으로

노수진 •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원

1. 들어가며³⁾

2015년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 부평문화사랑방이 부평구문화재단으로 통합된 이후 2017년 부평구립도서관이 도서관본부로 추가 통합되었다. 통합 과정에서 일부는 팀 업무를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기관별 업무에 집중되었던 경영지원, 시설관리, 마케팅 등은 업무조정을 통해 재단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가 확대되기도 했다.

분명 부평구문화재단 통합 전 후로 팀 간, 담당자간의 자율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도 협업 없이 독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으나, 몇몇 직원들은 협업을 위한 조직문화와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통합 전 작은 조직 내에서는 업무영역의 구분 없이 자발적인 협조와 공동의 행사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각 팀의 업무가 파편적으로 팀 고유의 업무로 여겨지고 타 본부, 타 팀 업무에 대한 무관심과 책임회피로 이어져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같이 해야 하는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독려하고 응원해주는 것 보다는, 귀찮은 일을 벌리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용담 그만이 하는 일이라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열심히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기도 한다. 또한 그동안 재단 운영에 관한 주요 안건이 전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소수 담당자에 의해 결정되고 다수가 폐제되고 있다는 의심, 성과기록자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적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의견, 올해 통합된 도서관본부와 위탁기관은 재단본부와 교류할 기회도 부족하다는 등의 여러 내부 의견이 있었다.

실상을 따져보면 문업화 된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인 업무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을 찾아보지 못함이 있고, 팀장 이상이 모여 매주 진행되는 확대간부회의와 주간업무보고 자료 공유 외에 팀별 업무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도 하다. 그로인해 실제 팀별 업무와 이에 따른 예산 차에 대한 불이해가 있을 수 있고, 심정적으로 다른 동료에 비해 자신의 업무량이 과대하게 느낄 수도 한다. 또한 주도권 선점을 위한 팀 과 기관단위 간 관망이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부분도, 단순히 담당자들의 과오로 인해 주기적으로 요청되는 주요 보고자료 제출 간이나 주요 사안에 관한 공람문서를 놓치 경고공유가 부족하다 여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부평구문화재단의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문업화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로, 해결을 위해서는 협업과 교류가 가능한 접점을 무단히 찾아내어 실행하

3) 본 내용은 발표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부평구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고,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각 부처의 혁신행정서비스를 통칭하는 '정부 3.0'⁴⁾ 역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표방하며 사회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으로 협업을 주요하게 꼽았다. 정부의 부처산화 공공기관 간 업무 관막이를 제거하는 것보다, 유사성격의 기관이 묶인 제단 내 교류와 업무 협조가 더 쉬울 것이라는 판단은 단순한 비약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①부평문화HUB CoP모임을 거쳐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정리된 내용과 ②제단 내 외부 협업구조로 짜여진 부평문화HUB, 부평문화상상테이블 2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작은 단위의 협업과 추진과정에서 부딪혔던 고민 점을 낱말이 적고자 한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고민과 문제의식은 일개 담당자의 반성과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는 사소한 고백일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되고, 제단 조직 내외 협업을 시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과정의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일부러 작은 문제라도 드러내고 지적하는 시선으로 정리했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협업(協業, cooperation)은 생산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계획적으로 협력하는 노동 형태로 협력(collabo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의 과정을 거친다.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로는 연대(連帶)가 있는데,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의미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내포한다.⁵⁾ 계획과 의도 없이 협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조직과 개인이 협업을 불필요하다 여기거나, 교육과 제달음을 통해 이미 중요성을 인식하고 훈련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다.

조직은 담당인력과 업무영역을 나누고 권한과 자유 재량권을 이양하는 분권 과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여 대응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고, 책임의 한계와 성과가 분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나, 부서간의 장벽을 만들어 자신의 부서 성과만 극대화 하게 되는 할거주의를 낳기도 한다. 분권을 통해 조직이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게 되면, 이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를 '계획적으로' 고안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성과 협력역량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것이다.⁶⁾

하지만 협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이상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함이다.⁷⁾ 협업과정에는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논쟁 시간, 지연,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예산초과, 릴리티 저하, 매출 감소 등의 협업비용이 소요된다. 협업을 위해서는 협업장벽으로 인해 과정에 소요되는 기회비용과 협업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타 부서로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거나 영역다툼과 같은 잘못된 관행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Morten T. hansen에 따르면 협업장벽을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다. ①외부 의견을 듣지 않는 폐쇄적인 문화, 약점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기의존적인 현상인 태타직(Not-Invented-Here) 장벽, ②정쟁을 통한 제한된 인센티브 정책, 바깥, 권력상설의 두려움으로 인해 낚을 뜯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독점장벽, ③회사의 규모, 물리적 거리, 정보의 과부하,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보나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검색장

4) 현재 박근혜정부 정부3.0의 명칭은 자취를 감추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공공부문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5)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6) 내용 중 일부는 다음의 글을 참고함. 이일청 외(2014), 시너지, 이매진

7) Morten T. hansen(2011), Collaboration 협업, 교보문고

벽, ④유대가 약하고, 암묵적 지식의 대다수를 이전할 수 없는 이전장벽이 그것이다. 결국 팀간 신뢰 부족, 갈등 등 감정의 골과 협업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부족, 미숙함이 이유일 수 있다.

2. 재단 내 협업 장려를 위해

재단 내 협업가능 범위를 간략하게 살펴보기 위해 재단 조직 업무를 2017년 업무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했다.⁸⁾ 부평구문화재단은 대표이사 직속 감사팀과 마케팅팀, 3본부(기획경영본부, 문화사업본부, 도서관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위탁기관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다.

구분		업무 내용
재단본부	마케팅팀	마케팅 _후원회 및 CMS, 기업체 협찬유치, 제휴처 개발, 마케팅조사(이미지텔, 관객만족도), 홈페이지 운영, 시즌대키지, 대표 홍보 _언론-온오프라인 홍보(보도자료, 언론사관리, 위자, SNS), 정기간행물 제작
	기획조정팀	인사 _인사평가, 복무, 노무, 직권역량강화 평가 _경영평가, 사업 성과평가 계획 _정책보람연구, 전략계획 대의업무 _이사회, 구안하기관장자대간부회의, 감사, 송무, 정보공개, 협의체(자문회의, 지역문화 협의체 등)
	기획경영지원팀	예산, 결산, 지출, 수입금 관리, 세무(원천세, 4대 보험, 연말정산) 급여, 수당, 선택적 복지 계약, 가족친화인증 관리
	시설관리팀	시설물 관리 _전기, 기계, 소방, 설비, 방송시설, 공사, 수선, 재보수, 안전관리·교육 시설물 위탁관리 _미화, 경비 편상통선 _전선통선 장비, 전자결제, 보안관리 그 외 _차량공유재산·물품관리 대관 _부평아트센터 강의형 공간 대관
	문화도시사업팀	사업 _BP음악산업아카데미, 축제(부평페스티벌 등), 음악동네, 시민음악교육 협의체 _자문회의, 시민분과 연구 _아카이빙, 음악도시 관련 연구 공간운영 _BP음악산업센터 사운드 스튜디오
	문화사업본부	공연 _국내외 공연기획·운영, 공연제작, 찾아가는 공연 축제 _부평키즈페스티벌 그 외 _상주예술단체, 공연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관리 하우스운영 _공연진행 및 하우스이서 관리 대관 _부평아트센터 공연장 대관
		공연 _국내외 공연기획·운영 예술교육 대관 _사랑방 공연장 대관 그 외 _시설, 자산, 물품관리, 기록

8) 재단 내부 문서 재구성, 부평구문화재단 본부 및 위탁기관 사무업무분장표(2017.8.21.기준)

구분			업무 내용
	문화 사업팀		전시 _전시제작기획, 신진작가기획자 공모, 육선 문화교육 _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재교육 커뮤니티 _동아리 사업, 생활문화센터 주민지원봉사, 청년기획단 공간대관·운영 _생활문화센터, 전시실 운영 구입예술품, 문화DB
		무대 기술팀	공연장 무대 기술, 음향, 조명, 안전관리
	도서 관 본 부	부개 상한 부개기획 청원 관한 부개어민이 6개 도서관	장서관리 _장서구입계획, 수서·정리·조직 업무, 입수(회당, 기증)도서 DB구축, 상호대차, 순회사 서 조사 및 계획 _독서문화진흥사업 기획 평가, 통계자료 관리, 이용자 지표조사 프로그램 기획·운영 _책읽는 부평,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직업채형, 자유학기제, 독서프로그램 등), 진학, 인문학강좌, 특별프로그램(재관행사, 방학, 가정의달, 독서문화의달, 문화가 있는 날), 정보취약계층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 원화 전시, 토요영화상영, 재능기부 참여 프로그램 _자원활동가 운영, 청소년 사서, 실버글넷도우미, 사회공헌일자리, 동아리 운영 홍보 _홈페이지, SNS, 정기간행물 협력체 _도서관운영위원회, 책읽는 부평 추진협의회,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공간운영 및 시설(위탁)관리 그 외 _전산업무, 자산관리(차량 등), 대관(문화아지트)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팀		예산, 결산, 지출, 수입금 관리, 급여, 수당 시설(위탁)관리 _건축, 설비, 전기, 명선, 소방 등 전산장비, 차량·공유재산·물품 관리 인사 복무, 계약 그 외 _평생교육생활체육사업, 홈페이지 운영, 운영위원회, 대관(공연장), 이용자 등 실적관리
	청소년 활동팀		청소년한글과제 운영 사업기획 - 창의공작물라자(데크, 푸드, 형크, 우드, 류즈), 청소년프로그램(축제, 캠프, 국제교 류, 사회적대리, 창의적체험활동 등), 기관방문 탐방, 동아리 운영 등 그 외 _협의회(청소년운영위원회, 자치조직연합) 등
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 지원팀		예산, 결산, 급여, 수당 자문위원회, 직원교육
	교육 문화팀		성문화교육관 운영 양성과정 _성교육활동가 관리, 청소년성문화동아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_찾아가는 성교육, 장애청소년재집학교, 학교축제지원, 방학특강,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 캠페인 등 그 외 _홈페이지 운영, 자원봉사 실적관리 등

주1. 정원 총 88명(2017.3 기준), 재단본부 71명(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청소년수련관 12명, 성문화센터 5명

주2. ⚙ 표시된 팀의 경우, 타 팀 지원·협력업무 다수

주3. 도서관본부의 경우, 대표도서관인 부개도서관의 홍보, 협력체 운영과 같은 공통업무 외에 6개관의 업무가
공간운영과 도서관면 업무,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으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팀 구분 없이 정리

부평구문화재단 조직별 업무

재단이 운영하는 부평아트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 BP음악산업센터), 부평문화사랑방, 6개 도서관(무개 도서관, 삼산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청천도서관, 갈산도서관, 무개어린이도서관), 부평청소년수련관(& 성문화교육관) 등의 10개 공간이 부평 전역에 배치되어 있어 공간별로 기관·팀별 동일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시설, 전산 관련 업무는 각개 주요 공간별로 필요한 사항이라 나뉘어져 있으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경우 각개 목적, 타겟, 내용은 다르지만 공연, 교육, 축제, 아카이빙 등 형식의 포맷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도서관본부 6개관이 함께 진행하는 책읽는 부평,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부평키즈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실무담당자를 간의 기술교류 및 협업 차원의 네트워킹과 업무조정, 재단 대표사업 공동 기획(음악도시 또는 지역 관련 테마)을 추진할 수 있다. 다음은 재단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팀간 협업 매트릭스이다.

[illegible]

의무적으로 팀간, 기관간 관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협업과제(사업)를 의무적으로 발간, 추천하게 할 수 있다. 협업가능한 전략사업으로는 축제 같은 대형 행사를 떠올릴 수 있는데, 공연사업팀 담당자의 제안에 따라 다수의 기관과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평키즈페스티벌의 경우 공동사업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축제운영의 구심체 역할은 기존대로 공연사업팀이 맡되, 협업체제로 바꾸어 예산배정부터 참여하는 각 팀의 예산으로 규정하여 기획부터 예산집행까지 참여 팀기관별로 권한과 업무를 나누어 시너지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민 문화향유 및 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중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고, 재정절감효과가 높은 협업과제를 택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해 연도에 정해진 과제를 밀어붙이기 보다는 상황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협업이라 판단되거나, 실행이 어려워진 경우 유기적으로 과제와 예산의 재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음악도시 사업의 경우 이미 여러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단 내 팀간 연계사업 기획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자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간 협력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특히 인접해 있는 무원은 만화영상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발의⁹⁾에 따라 음악산업의 정책적 육성 가능성이 있다. 만약 무원의 음악산업 육성이 실제화 된다면 지역협력형 음악사업 개발뿐만 아니라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의 음악전용 공연장인 무원문화예술회관과 무평아트센터의 역할분담도 함께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사업기획 이전에 먼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일 것이다. 매년 예산확정 시 개별 담당자들의 사업 및 예산제출 후 대표이사, 본부장, 팀장 회의를 통해 예산과 사업이 한차례 걸러지고, 이후 구청의 조정을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있다. 우선적으로 사업 성격별 예산규모가 비교 분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협업사업에 대한 구상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과 전체 회의를 통한 차년 우선순위 주요사업과 시의적 사업의 예산을 정하고, 정해진 예산에 따라 각 담당자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게 된다면 예산확정에 대한 불만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담당자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예산확정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협업을 장려하는 업무분위기 개선을 위해 협업과제(혹은 사업)를 수행하는 팀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인사평가 시 개인별 협업과 관련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전직원 다면평가를 통해 협업에 적극적이었던 직원, 개별적으로 정보공유 및 협조와 같은 도움을 준 직원을 뽑아 순위를 매겨 가점을 부여한다면 의도적으로 타 부서 간 협조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타 부서, 다른 동료와의 협업이 업무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늘 비협조적이거나 분쟁을 만드는 직원이 있다면 부서이동을 통해 그 사람의 업무를 바꾸고, 각성시킬 수 있는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해당자의 업무유관성이나 전문분야에 따라 업무변경을 해야 하므로, 팀별 협업과정이나 업무교류를 통해 업무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재단 직원들의 순환보직에 대한 요구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업무의 전문성 결여, 담당업무에 대한 비전과 철학 결여, 장기적 관점의 업무책임감 부족 등이 있으므로 예상되는 반작용은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부평문화HUB

부평문화HUB는 재단 내부 직원을 간의 학습을 통해 실무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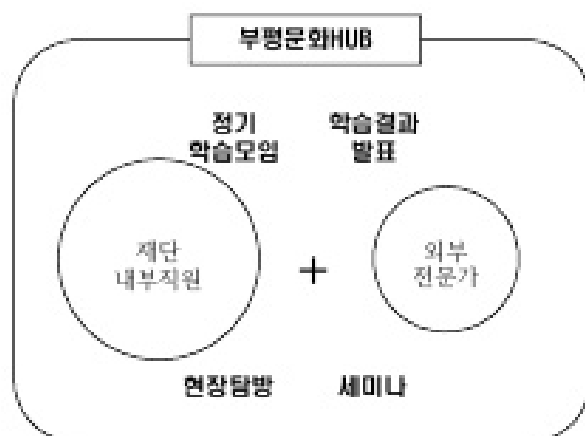
9) 2017.7. 영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무원1)

실행을 전제로 한 정책연구, 공동의 사업 개발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 내외 전문가들이 학습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제단의 형편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전문적 조언과 다른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게 된다. 담당자의 입장에서 제단 내외 멤버들이 지속가능한 부평 문화예술과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학습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정책은 지역의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축적한 가치를 실행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의 교훈을 반영하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기조이다. 기초문화재단의 정책은 지역 현장의 문제와 해결 가능한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중앙 정책의 이념과 철학적 가치를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단 담당자 입장에서 척박한 지역환경에서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출중한 역량을 갖춘 준비된 지역문화 기획자,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실상 우선적으로 지역을 세우는 기획력을 펼쳐야 하는 문화대개자는 제단 직원들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당면한 사업과 과제에 매몰되어 시야를 넓히는 일에 적극적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평문화HUB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평의 사정을 원히 아는 전문가 층을 형성하고, 그보다 먼저 직원들이 제단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되기 바랐다.

HUB 사업기획에 앞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을 때, 논의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군의 멤버십을 구축하되 6명 내외 소수인원의 구성이 좋다는 의견을 받았다. 인원이 많아지면 쪽정이 같은 논의가 나오고,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데 문대가 6~7명 정도의 10명 미만 인원으로 구성되는 이유가 그 인원을 넘어가면 명령조가 듣지 않기 때문이라 했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제단 직원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6명 내외 소수로 운영하는 것은 무임 예산 대비 참여인원 수라는 성과 잣대에 비추어 어려웠고, 자발하는 직원과 의도적으로 합류를 요청 드린 직원, 후발로 참여한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9명으로 짜여졌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부평 내에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할 만한 분들을 섭외했으나, 여러 분들의 고사 끝에 중앙 연구자정책실행가 2인, 인천 문화기획자-전문가 2인으로 확정지어 총 13명의 멤버가 모였다.



처음 기획목표는 올해 당면과제인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될 재단 직원들의 의견제언 차원에서 학습모임, 현장탐방, 세미나, 발표회를 포함한 모임동안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과제발굴과 연구성과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결정하고 결과물을 내기까지 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멤버 다수의 의견이어서 사전 모색단계로 참여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부평문화정책 전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탐독으로 상당부분의 모임이 진행되었다. 학습 과정에서 나오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기록·정리하여 공동에 공유하는 것도 HUB 사업의 주요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두 모임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잡는 사사로운 것부터 참가자들의 고유 업무가 배비 진행되는 상황에 번의 시간을 내어 참여해야 하는 변수까지 여러 이유로 인해 무침을 겪으며 모임이 진행되었으나, 참여자들의 꾸준한 열의와 성실함이 이어졌다. 학습모임을 통해 평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여러 정책자료를 함께 훑어보고 의견을 나눴으며, 서로의 업무와 부평구정 흐름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모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4가지 협력장벽이 두루 비춰지면서 자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밧에 걸린 느낌이 들었다. 참가, 주제 선정 등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제안하는 것을 기본 물로 삼았으나,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인 자율성과 공동연구·사업 과제 발굴이라는 균형을 조율하기 어려워 실제 자율성과 독립성은 사업 담당자에게 일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부평문화HUB 개선 아이디어

9개월간 지속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보니, 참고할 수 있는 동일한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협력적인 학습을 실행하는 사업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멤버들의 (협업)경험치를 높이고, 단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다. 주도적인 소수를 주축으로 한 구체적인 공동 연구주제나 세부사업을 먼저 제안하여 학습과 연구계획을 도모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부평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대표 전략지표인 '문화가 함께하는 부평'이 있으나, 재단의 담당자들이 이를 엄두하고 차년 계획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관련된 학습과 문화정책,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토대로 구경목표를 이뤄가는 부분에 대해 실제 재단 ~~실제~~ 실무단위에서는 제감되는 배가 부족했으나 분야, 분과, 장르에 한정된 문화(예술)가 아닌,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한 문화 전략과 계획은 다양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평구 예산 기준 3.08%¹⁰⁾에 문화(관광) 예산의 증가뿐만 아닌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지는 점을 인지한다면 담당자들의 생각과 의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분야별 사업들을 분야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구성한다면 개별 사업 수를 줄여 성과까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결합시켜 확장시킬 수 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부평문화HUB 사업을 개방형 모임과 핵심멤버들의 소수모임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싶다. 개방형 모임의 경우, 고정적으로 문화다양성, 도시재생 등의 한 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1년 동안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관계전문가에게 필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그 과정 전반을 관심있는 일반(혹은 관계 전문가들)에게 오픈하는 방식을 엄두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주제별로 일관된 학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다수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들에게 모임을 오픈하게 되면, 내부직원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지 못할 수 있

10) 2016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문화 및 관광(체육)분야 184억(3.08%), 교육분야 67억(1.13%)

으나 이해관계와 관심층위를 서로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현재 HUB멤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3. 재단 대외 협업을 위해

재단 조직 간의 협업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는 중앙·지역의 기관, 단체, 예술가, 기획자와 협업을 도모해야 함은 충분히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공공재단(혹은 공공기관)이 파트너를 배제한 채 콘텐츠를 기획, 창작, 유통, 판매, 서비스까지 모두 아우른다면 특히 지역의 경우, 작은 문화생태계를 독식하고 수직구조를 중용하는 횡포로 비취질 수 있다. 기업이 아니므로, 성과 극대화를 위해 무지불식간에 생태계를 장악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숙련된 재단 직원들이 전문적인 안목으로 지역 파트너와의 협업보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선별적으로 뛰어난 파트너를 해사선택하는 일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일정 목표를 파트너에게 주문하고, 그 기준에 상응하는 성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재단 측에 주어진다. 공공재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최대 효과를 내어 다수의 주민, 즉 공공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청지기 정신(stewardship)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 역시 타자에 의해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이나 간접지원 성격의 사업도 경쟁구도를 만들어 지역 현장의 여건과 상관없는 평가 잣대를 들이치는 등 권력화된 공공기관이 문화재원을 틀어잡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의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의 참여와 협업을 '계획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공익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어 지역문화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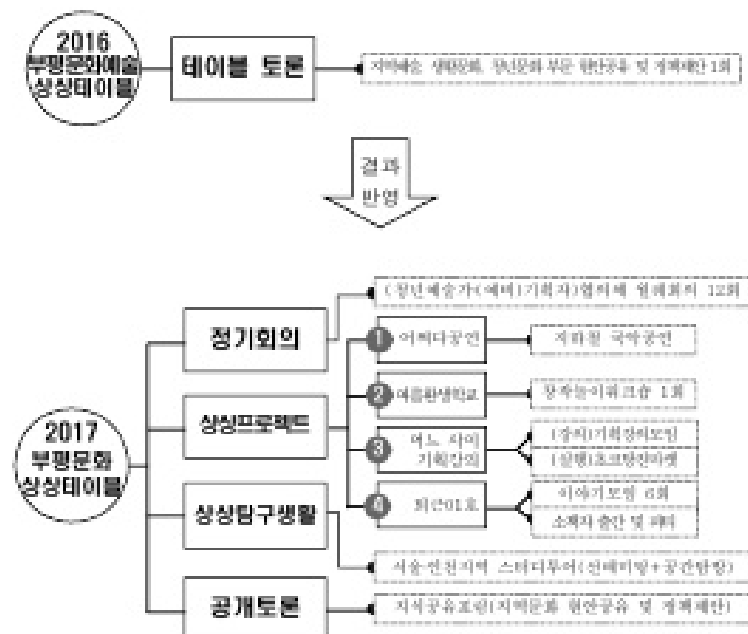
재단이 대외 협업구조를 이끌어갈 때, 협업 주체들이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행위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의 기본인 재정독립성이 재단을 포함한 각 주체들에게 유효하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공공재원을 집행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예술가·기획자간의 연대를 형성해야 하고, 각 주체들의 주인의식을 증진하고, 계구설을 다할 수 있도록 주체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중앙에 비해 취약하고 신념을 갖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우므로 재단은 이들의 참여기회 확대, 주체적 역량 강화, 활동무대 마련 등의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발전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부평문화상상테이블

2016년 부평문화예술 상상테이블은 토론형 워크숍이었다. 문화예술, 청년문화, 생활문화 부문 주체들이 재단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결과를 토대로 재단 내 사업별 반영가능 지점을 검토했다. 생활문화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생활문화 부문에 참여한 동아리 활동가들의 의견은 공간 리모델링 요청사항과 초반 운영계획에 일부 반영되었다. 하지만 당시 재단 내에는 간접지원 방식이 대다수였고, 청년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인 청년배당이 유일하여 문화예술, 청년문화 부문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수렴하기는 어려웠다. 늘 의견수렴을 위한 형식적인 자리를 마련한 뒤, 아무것도 반영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향하는 청년활동가의 비판 섞인 냉두리가 걸렸다.

요구사항 중 몇 가지를 2017년 상상테이블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해보고자 사업방식을 재조정 했다. 공공현장주제와 공공지원주제가 수평적 관계로 만나 자율성을 토대로 자발적인 문제의식에 따른 소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활동무대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고, 이후 이들이 기획한 프로젝트와 재단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매칭하여 재단 사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였다.

참여대상인 예술가, 기획자를 모집 단계부터 경쟁구도 없이 재단이 직접 부평 내 활동가를 찾아 나서고, 권유와 추천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갔다. 세아트프로젝트로 주어진 예산이 소액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부류가 분명했다. 부평 내 거주근무하는 예술가와 (예비)기획자로 구성된 협의체 멤버를 7명으로 확정하고 모임의 호흡을 1년 12달로 길게 잡아 참여자들이 부평 내에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창의성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현장학습과 간접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식은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성북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등의 두드러지는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사업 당위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대외 주체들과 재단이 수평적인 협업을 실현하는 매커니즘을 시도하고, 작은 단위 사업으로 면밀하게 기획해보자는 의도가 있었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재단 담당자와 청년기획자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민점이 있었다.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과정으로 설계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의견충돌도 있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극복해낸 쾌감도 있다. 작은 성과지만, 총 870만원의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행정 지원을 대하며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였으므로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성과무분은 이후 다른 섹션에서 청년기획자가 정리하기로 하였으니, 사업추진 맥락에서 드러났던 일종의 무명형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단담당자로서의 고민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현장 기획자와 협업과정에서 느끼는 고민과 한계

처음에는 협의체 멤버들에게 그들이 가장 문제의식을 가졌던 무명 내 청년들의 문화적인 놀거리, 즐길 거리, 참여할 거리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상상태이블 멤버로 합류시킬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 기획을 권하였다. 물론 그 배경은 소액의 예산 때문이었다. 하지만 멤버 중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궁합 맞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결국 7명씩 50만원 내외를 가지고 함께 기획을 하든 각자 새로운 멤버를 꾸려서 진행하든 자율적인 의사에 따르기로 하고, 진행과정을 월례회의에서 공유하며 각자 프로젝트의 필요사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체 멤버들이 서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4명이 기획한 놀이워크숍 '여름환생학교'와 각각 1명이 기획한 지하철 퇴근길 콘서트 '어쩌다 공연', 소규모 공간에서 작은 파티를 여는 '어느 사이 기획장과초코탕진마켓', 일상적 이야기를 글로 묶어낸 독립잡지 '퇴근 01호'로 프로젝트를 확장했고, 예산은 살비위주로 확장한 예산계획에서 조금씩 조정했다.

고민1. 마음 맞는 사람들과서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리이고 일정부분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대외 협업 과정에서, 초반 기획의도와 다른 주체들의 자율적인 의견을 수용할 때, 어디까지 받아들이야 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각자 1페이지 기획안으로 정리하여 협의체 멤버들과 내용을 점검했다. 전문가 멘토 없이, 우리끼리 조언과 논의를 통해 기획안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재단 담당자가 상상태이블의 공동기획자로서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와 보완 가능한 요소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때, 협의체 멤버들은 거부감을 표했다. 재단담당자가 제시하는 것이 의견이 아닌 강압적인 요구로 느껴지고, 책임감 없는 간섭처럼 느껴져 반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재단 직원과 현장의 기획자는 협의 테이블에 동등하게 앉는다 하더라도 감과를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가지고 동일선상에서 협의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프로젝트 참여인원을 정하는 문제였는데, 창작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자리에서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싶어 했다. 만약 정량적 성과중심의 요구를 한다면 협력하기보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고민2. 소액으로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는 자원기획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재단 담당자와 기획자는 여러 사람들을 참여하게끔 기획하기 어렵다. 정량적 성과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나 소규모 인원에게 해력이 돌아가는 사업계획을 시도한 이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어느 편을 좇아야 하나. 정성적 성과=과정의 의미와 가치는 얼마만큼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결국 협의체가 제시했던 대부분의 내용을 인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적은 예산범위를 감안하여 참여한 멤버들은 수차례 개별모임을 하면서도 프로젝트 내에서 자신의 기획비를 적게 책정하고,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물며 자비를 들여 프로젝트 내 추가 과정(초코탕진마켓, 퇴근 01호 출간회)을 기획하기도 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

당면이 부여되었을 때 각자 열의를 북돋아 추가 성과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고민3. 노동집약도가 높고, 긴 노동시간이 유지되는 문화기획에 있어, 관습적으로 기획비가 그 만큼 책정되지 않는다. 이들을 문화활성화의 주요 주체로 보기 보다는 문화생산의 도구로 인식하기 때 문인데, 예산범위 자체가 빈약한 상상대이블과 같은 사업에서 재단 담당자로서 '참여기획과 경험 재 공' 외에 이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구체적인 보상 없이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작업선택과 먹고 살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 청년기획 자를 위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함께 구상해야 할까.

마지막 고민3의 일정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마실 사업' 과 자연스럽게 연계하려던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협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아직 무평문화상상대이블이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재단 담당자로서 반성지점을 여러 개 지 찾아본다. 사업에 참여한 협의체 멤버를 비롯한 참여자들이 전체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매 프로젝 트에 참여하면서 사업의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 과정을 세밀하게 알리지 못했다. 공 모방식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사업을 기획했다고 생각했지만, 매년 꾸준히, 그리고 동일하게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언론 보도 등 이슈화 시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자인한다.

또한 사업의 당위성과 성과에 치중하여 과정을 설계하면서 단순히 청년기획단이 기획하는 문화프로젝트 로 여겨질 수 있는 점을 간과하였고, 사업 초기단계에는 지역외제를 매개로 한 프로젝트 기획을 중용했 으나, 무평 출신(혹은 거주, 근무)자로 구성된 협의체 멤버들의 욕구를 서둘러 반영하는 과정에서 무평 의 지역성을 발현한 프로젝트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여러 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었으며, 프로젝트 팀을 이뤄 합을 맞춘 참가자들의 열의는 상상대이블 외 다른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되는 돈독한 관계로 확대되었 다. 프로젝트별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평균 93.5점¹¹⁾으로 높은 수치이며, 이들은 건넌하 기 인천과 무평의 청년문화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도가 결실로 이어지기 바라는 기대

두 개의 사례를 통해 재단이 협업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도 차원 에서 올 한 해 추진한 작은 사업을 사례삼아 확대해석한 감이 있어 무고람기도 하다. 사실 우리 모두 우리 재단이 조직 내 직원들과 외부의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협업해야 하는 의무 가 있고, 선순환 정체를 풀리기 위해 어렵더라도 협업과정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알고 있 다.

하는 만큼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이다.

11) 이책다 공연 90점, 어름한생학교 98점, 상상탐구생활 서울 92.73점

2017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운영결과

2017 부평문화 상상테이블

- 퇴근길 국악콘서트 '어쩌다 공연'
- 나로서기 '여름환생학교'
- 독립잡지 '퇴근이호'
- 문화로 배우자 '어느 사이 마켓 기획강의', '어느 사이 프리마켓'
- 찾아가는 '상상탐구생활 서울, 인천'

퇴근길 국악콘서트
어쩌다공연

공연 일시 : 5월 24일 19:30-20:10 장소 : 부평구청역 상설공연

• 퇴근길에 익숙한 국악 한 소절을 만나

국악의 진정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입니다.

젊은 청년의 시선으로 해석한 국악을

편안히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기획자 : 신희숙

타악 설장고 시나위 공연







나루서기 여름환생학교

공연 일시 6.17(토) 10:00-19:00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지하 1층

• “이번 생은 망했어요”

연애, 결혼, 주택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청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의욕과 자존감입니다.

외부 치유에 기대지 않고

나를 돌아보며 스스로 자존감의 원천을 찾아낼 수 있는
놀이 워크숍입니다.

기획자 : 정예지 강현구 이선빈 조하늘



http://blog.naver.com/hapyeong_art/221032721447



맞춤상복 만들기&자기소개



최후의 만찬





444체조, 죽음의 레이스(명줄 늘리기, 빙의게임, 명줄잡기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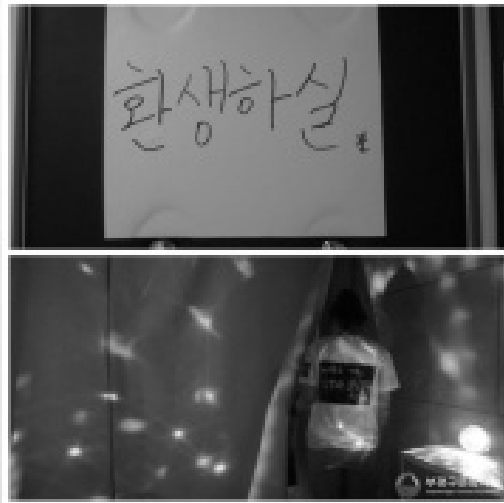
모비명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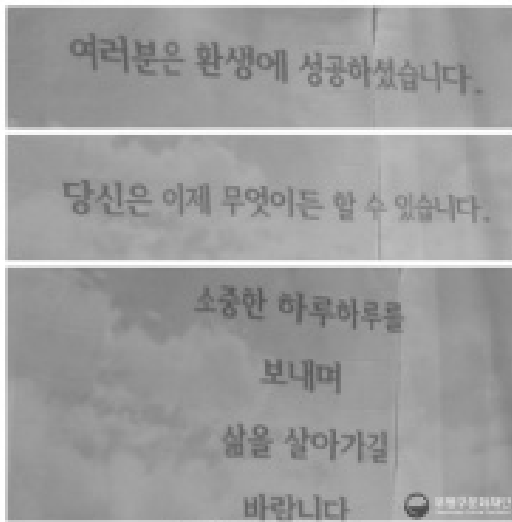
종장실
(나쁜 기억 회상 시키기)



조상실
(물 끄고 나에게 집중하며 조상화 그리기)



환생하실
(드디어 환생 할 차례)



환생하실 마지막 엔드



여름환생학교 수료증 증정



독립정지 퇴근이호

퇴근모임 6.4 / 6.11 / 6.18 / 7.30 / 8.27(일) 14:00-16:00/퇴근 이호 발간 11월 초

- 매일같이 퇴근하는 직장인, 퇴근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등 퇴근과 관련된 청년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나누고 글로 적어내면서 독립정지에 담아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탄생된 소중한 이야기들은 자칫 지루하고 무덤덤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하루 하루에 가치를 더하여 설렘과 만족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이야기 창작자로 변모하게 되고 청년간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획자 : 이선영



SNS에서 보여 지는 과시적인 이미지가 아닌,
날을 인식하는 그런 글이 아닌
삶의 너저분한 모습까지 드러내 보여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 걸걸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만의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책.



문화로 배우자

어느 사이 마켓 기획강의

6.9(금) 19:30 ~ 7.7(금) 19:00-20:00 복합문화공간 어느 사이 부평

· 생기 있는 아트마켓을 만들기 위한 직접 실행을 전제로 프로그램을 구상해보는
참여형 강의입니다.

문화로 놀자

어느 사이 프리마켓

8.12(토) 12:00-20:00 복합문화공간 어느 사이 부평

·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아트상품과 기분 좋은 공연을 만날 수 있는
마켓으로 부평·인천 주민과 청년 누구든지 와서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 마켓 기획강의를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기획자 : 조윤성





기획 강의



초코탕진마켓과 공연



찾아가는 상상탐구생활 서울·인천

서울 | 9.16(토) 10:00-17:00 카페스튜디오 배우:다 김세환 대표
인천 | 11.11(토) 10:00-17:00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정윤호 대표

- 상상멤버와 프로젝트 참가자 12여명이
서울·인천 지역에서 생존하고 있는 문화기획자를
직접 찾아가 지역을 바뀌어나가는
경험과 고민에 대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		내용		비고	
09:00		1회선 정장리력 3번 문구 집결			조별구분
10:10~12:00	☞	(활동/활동공간) 카페스튜디오 배후(C)	김세원 대표	강연도 활동	과제1 활동문자지
13:00~13:00	☞	정성 식사			과제2 활동지지
13:00~13:40	☞	여름		조별 교제	
13:40~16:00	☞	(문학/도서관/기업문화공간) 현 대티도 Music Library	공간 투어 및 음악관련 정보 수집	문학도 공간 관상	과제3 배우한 공간이 활동하여 도출 한 도출은 결과 공감할 수있다 문학사지 부록 공간에 활동할 수있다
14:30~16:00	☞	(건축/문화공간/기업문화공간) 현 대티도 Storage VINYLA PLASTIC	ADFF SEEDS Architecture&Design Film Festival <그리스 디자인>	영화	
16:00~16:00	☞	여름			과제4 과제 논의
16:30~17:10	☞	(활동/도서관/행사/행사공간) 구슬의대강구장	현 팀: 의 자여의의 여름	전시	과제5 공간을 다양한 도구로 설계 사용하는 디자인
17:10~18:00	☞	(디자인/전시/전시공간) D MUSIC LAB	PLASTIC FANTASTIC : 상상 사용법	전시	조별미션지(활동지) 작성 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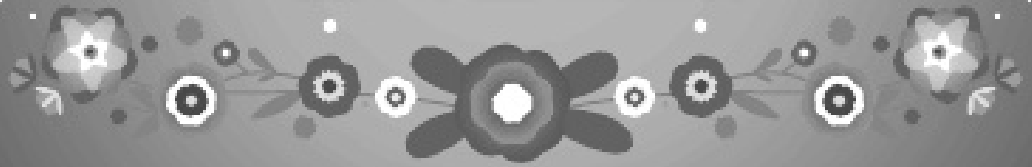


카페 배우다 김세환 대표



청년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천에 청년이 있다.



기획

상상태이를
부평청년기획단 사:들
청년인력소
LABEL
청년인천
인천청년유니온



공간

공유공간 팩토리얼
어느사이



협동조합

꿈꾸는문화놀이터
뚝



마켓

부평로터리마켓
강화중앙시장
청년물 개벽2333

기 획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청년인력소 & 풍파레인력소

부평청년기획단 시:를

LAB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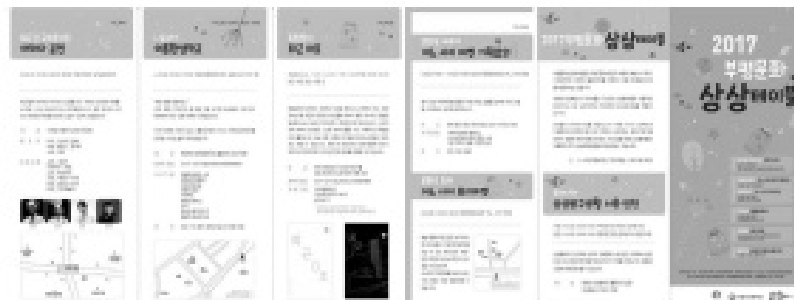
청년연천

인천청년유니온

문화자치연구소 거리출렁



부평문화재단
7명의 부평청년기획자
5개의 프로젝트
2번의 탐구생활



기 획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청년인력소 & 풍파레인력소

부평청년기획단 시:를

LABEL

청년연천

인천청년유니온

문화자치연구소 거리출렁



청년인력소

쓰실분

하실분



대표 : 정예지(2017~)
매월 청년 네트워크파티
인천 청년 자작곡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인력소 아트박람회(10.21~22)



기 획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청년인력소 & 광복로인력소

부평청년기획단 시:음

LABEL

청년인천

인천청년유니온

문화자치연구소 거리올림

부평청년기획단 "시:음" by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

대표 : 최수현(2017~)



기 획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청년인력소 & 광복로인력소

부평청년기획단 시:음

LABEL

청년인천

인천청년유니온

문화자치연구소 거리올림

대표 : 조윤상(2017~)

라벨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공유하는 Music business

: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만의 방식을 만듭니다

기 획



청년인천 해터

부평문화상상테이بل
청년연력소 & 광파레연력소
부평청년기획단 시:를
LABEL
청년인천
인천청년유니온
문화자치연구소 거리출렁



대표 : 라정민, 장은주, 정예지(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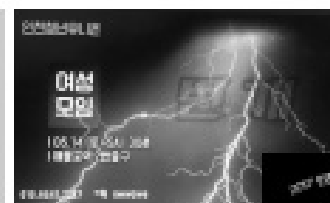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인천의제21)
교육문화분과



기 획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청년연력소 & 광파레연력소
부평청년기획단 시:를
LABEL
청년인천
인천청년유니온
문화자치연구소 거리출렁



기 획

부평문화상상테이블
청년인력소 & 광복제인력소
부평청년기획단 시:를
LABEL
청년인전
인천청년유니온
문화자치연구소 거리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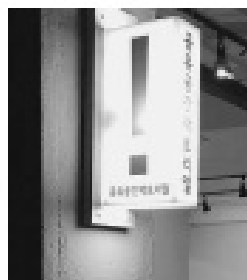


대표 : 백지현(2013~)



공 간

공유공간 팩토리얼
어느사어



대표 : 백지현(2016~)

인천 남구 용일자유시장 내

청년기획협동조합,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리모델링, 2017)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공동체만들기 사업

구도심과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 사회적 이슈를 청년과 예술인 결합



공 간

공유공간 액토리얼

어느사이



대표 : 조윤상(2016~)

프라이빗 파티룸/복합문화공간 어느사이

신흥/홍대/부평

클래스/전시/공연/오른마이크/아트마켓 등

너와 나 사이 마음을 잇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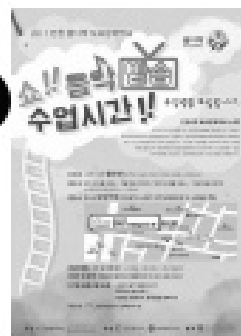
"우리는 어느사이 인걸까?"



꿈꾸는문화놀이터 뜻

협 동 조 합

대표 : 정윤호(2012~)
남동구 마을기업
지역축제, 공연, 전시 등 기획
청년들의 마을 문화공동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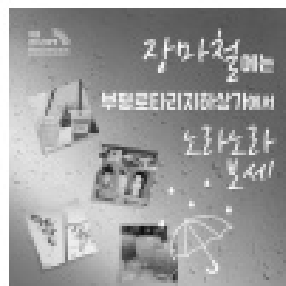


안전으로 오세요! 지하로 내려오세요!

SINCE 2014~

부평로타리마켓
강화중앙시장청년몰
개벽2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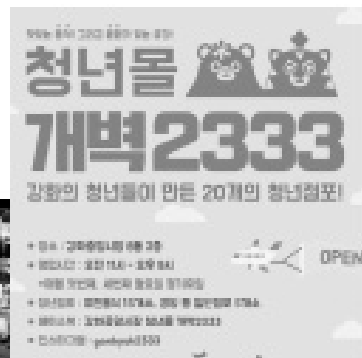
마 켓



SINCE 2016~
강화중앙시장 B동 2층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

부평로타리마켓
강화중앙시장청년몰
개벽2333

마 켓



THANG YOU !



“인생에 형님이 있다.”

2017. 10. 10.

부평지식공유포럼

지역문화 발전전략과 실행노력

발행인 박옥진

발행처 재단법인 부평구문화재단

발행일 2017. 10.

기획총괄 기획조정팀장 김유정

기획운영 기획조정팀 노수진



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TEL 032,500,2013 | FAX 032,500,2160

 bpcf.or.kr

 facebook.com/bpsangsang